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작성법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62 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개정 2015.12.30.)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작성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Contents\_목차

<b>I. 학위논문의 이해</b> .....	<b>1</b>
1. 논문의 개념 .....	1
2. 논문의 요건 .....	1
3. 논문의 유형 .....	3
<b>II. 학위논문 관련 연구윤리 규정</b> .....	<b>4</b>
1.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	4
2. 인간대상 연구와 IRB .....	6
3. 동물대상 연구와 IACUC .....	7
<b>III. 학위논문 체제 및 작성 지침</b> .....	<b>9</b>
1. 기본 작성 원칙 .....	9
2. 학위논문 구성 및 순서 .....	10
3. 학위논문 작성 지침 .....	11
<b>IV. 학위논문 계획 및 작성 방법</b> .....	<b>24</b>
1. 연구주제 선정 .....	24
2. 논문의 구조·작성 .....	24
3. 자료조사 및 학술정보원 검색 .....	31
4. 수집자료의 평가 .....	36
5. 자료정리: 서지관리도구 활용 .....	37

# Contents\_목차

V. 학위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	38
1.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법 .....	38
2. 논문기재방식 .....	44
참고문헌 .....	53
부 록 .....	54
<별표 1> 겉표지 .....	55
<별표 2> 표제면 .....	56
<별표 3> 제출서 .....	57
<별표 4> 인준서 .....	58
<별표 5> 목차 .....	59
<별표 6> 표목차 .....	60
<별표 7> 국문초록 .....	61
<별표 8> 영문초록 .....	62
<별표 9> 영문 표제면 .....	63
<별표 10> 영문 제출서 .....	64
<별표 11> 영문 인준서 .....	65
<별표 12> 영문논문의 국문초록 .....	66



# I. 학위논문의 이해

## 1. 논문의 개념

논문이란 특정 주제에 관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포함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일정한 형식과 논리적인 과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글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문은 크게 일반적인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논문은 학회나 저널에 투고하여 출판된 논문을 가리킨다. 학술논문은 학자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위논문은 명칭 그대로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논문이다. 따라서 학위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산물, 또는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위논문이란 연구자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에 관한 지식의 축적에 독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판단의 척도가 되고 있다.

학위논문이 일반 학술논문(연구논문)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제에 관한 연구사적인 고찰이나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傾注)한 흔적이 논문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 2. 논문의 요건

논문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 논문 유형에 상관없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이 있다.

### 1) 독창성(창의성)

독창성은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과 견해를 제시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내리거나,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독창성은 단지 소재의 새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루어진 소재라도 기술 방법이나 관점 또는 결론으로 이끄는 방식이 새로우면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 2) 구체성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재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는 단지 인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3) 객관성

논문은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이 아닌 사실과 증거가 논문을 뒷받침해야 하고, 연구자의 의견이 개진될 때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과학적 데이터가 증거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 4) 정확성

연구자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논문에 제시된 통계자료, 인용된 인명이나 저술의 표제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만 한다. 또한 논문의 내용은 물론 각주나 참고문헌 목록의 기입양식도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5) 검증가능성

논문의 내용은 누구나 제시된 새로운 자료나 해결 방식, 결론 등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재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문에는 자료의 출처, 연구의 각도나 방법, 주제에 대한 접근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검증가능성이란 논문의 내용 진위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확정적 기술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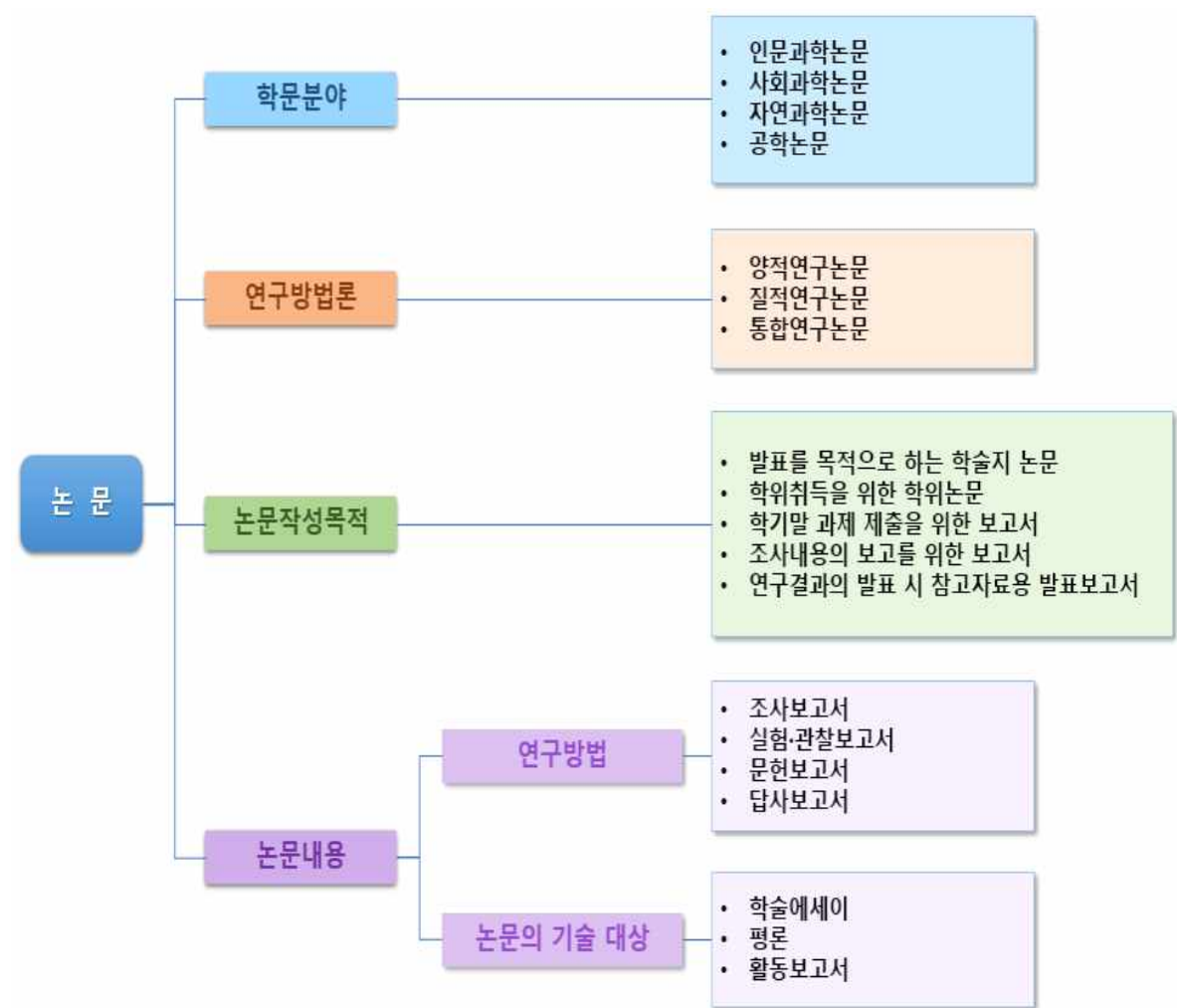
## 6) 유용성(효용성)

논문에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새로운 정보가 그 학문분야 또는 인접학문분야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 3. 논문의 유형

논문의 종류는 생산범위, 독자, 학문분야, 연구분야, 목적, 내용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된 논문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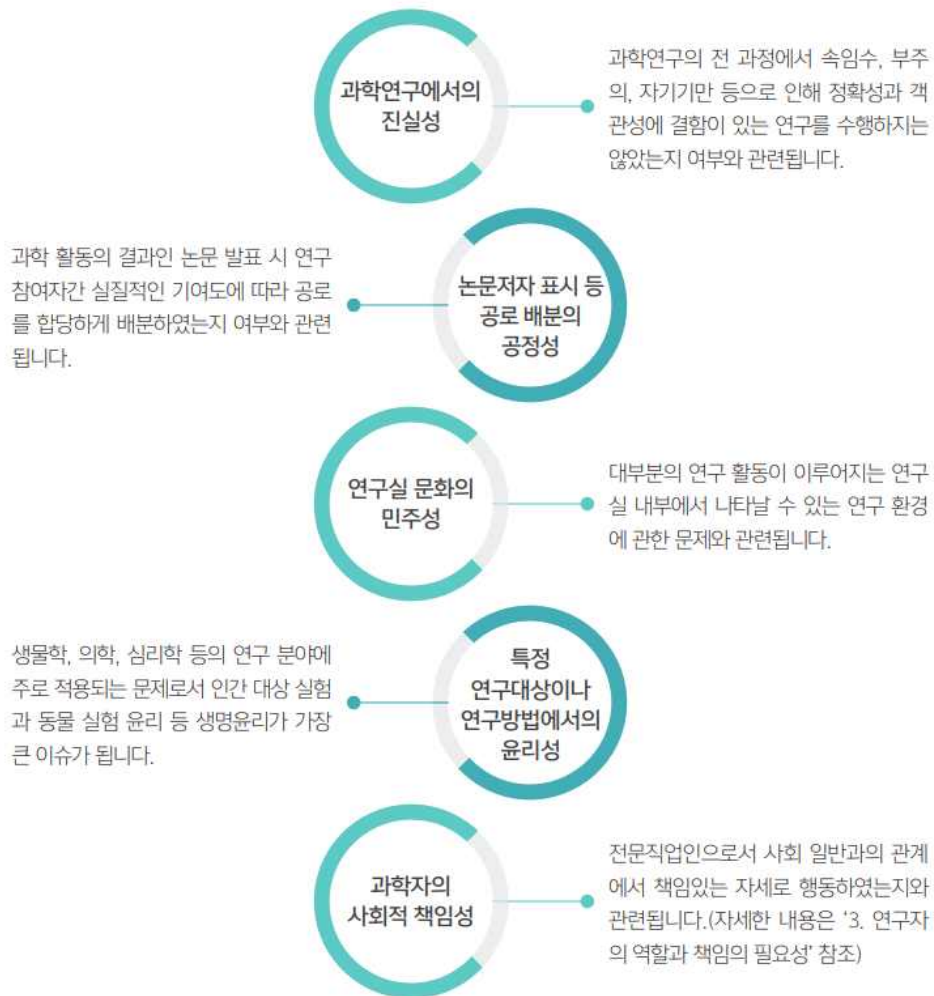
출처: 노영희, 박양하 (2022). 논문자료 탐색과 논문작성법. 서울: 청람



## II. 학위논문 관련 연구윤리 규정

### 1.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연구윤리(Research Ethics)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양식을 말한다. 연구윤리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www.nibp.kr/xe/>>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은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와 자율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2)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3) 연구윤리 관련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은 모든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연구부정행위란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 계획, 수행 혹은 심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g: 면담 및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결과를 작성하고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통계적 유효성을 위해 실제 실험 결과에 허구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g: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출처: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학기술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 2. 인간대상 연구와 IRB

연구에 있어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약품과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연구 대상이 되는 피실험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피실험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부규칙과, 적용 가능한 정부 출연기관 법규, 규정, 정책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만든 타당한 규약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어떤 연구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를 알 것
-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것
-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
-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는 지속적인 책임감을 지닐 것

인간대상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 대상연구를 하려는 자의 법적 의무와 인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 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 대상연구란?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직접적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개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음과 학계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준수가 중요한 것이 되어 학문적 활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IRB 심의 통과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R&D 지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음)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MU-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 연구를 비롯한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인간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내·외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 및 연구항목 등의 「인간 실험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IRB & IACUC 규정 참조 <<https://irb.sookmyung.ac.kr/index.htm>>

### 3. 동물대상 연구와 IACUC

동물 연구는 다른 이유에서 인간대상 실험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인간대상 연구의 규제는 인간대상 연구를 통해 전 인류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소수의 피실험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동물들도 동물 실험을 통해 얻는 정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몇몇 연구는 동물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동물이 아닌 인간을 위해 주로 시행된다. 또한 인간과 달리 동물은 실험 참가에 대해 동의하거나 치료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므로, 동물을 이용해 실험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생겨난다.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어떤 종류의 활동이 규제를 받는지 알아야 한다.
- 연구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규칙을 이해하고 따른다.
-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
- 연구 프로젝트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규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책임감을 갖는다.



연구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할 예정이라면 연구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의 책임을 인지하고 권한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MU-IACUC)를 구성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의 동물실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내외에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 및 연구항목 등의 「동물실험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IRB & IACUC 규정 참조 <<https://irb.sookmyung.ac.kr/index.htm>>

정규심의신청 마감	둘째 주 <b>화요일</b>
정규심의	마지막 주
신속심의신청 마감	첫째 주 <b>목요일</b>
신속심의	둘째 주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IRB & IACUC 홈페이지 <<https://irb.sookmyung.ac.kr/index.htm>>



### Ⅲ. 학위논문 체제 및 작성 지침

- ※ 2023년 2월 졸업자부터는 학위논문 책자(인쇄본) 제출 없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만 중앙도서관에 제출합니다.
- ※ 책자(인쇄본)에 해당하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기본 작성 원칙

학위논문은 범용 워드프로세스(한글, MS-Word 등)로 작성하며, 아래의 기본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구분	내용	
편집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210mm x 297mm)</li> <li>• 세로방향 기본설정</li> </ul>	
용지여백	<한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아래 여백 38mm, 머리말·꼬리말 15mm</li> <li>• 좌·우 여백 35mm, 제본 0mm</li> <li>• 줄 간격: 180% 기준 (130% ~ 200% 조정 가능)</li> </ul>
	<MS-W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아래 여백 5.3cm</li> <li>• 좌·우 여백 3.5cm, 제본 0cm</li> </ul>
정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의 모든 내용은 양쪽 맞춤정렬 기준</li> <li>• 각 문단의 첫 줄은 2글자 들여쓰기</li> </ul>	
글자체/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제목: 16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중 사용), 진하게</li> <li>• 중간제목: 14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중 사용), 진하게</li> <li>• 소 제목: 12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중 사용), 진하게</li> <li>• 본문: 11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중 사용)</li> <li>• 각 주: 9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중 사용)</li> </ul>	
쪽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쪽에서 20mm, 중앙배열, 하이픈(-) 넣지 않음</li> </ul>	
문단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단의 제목은 단위가 낮아질수록 들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각 문단의 시작은 제목의 위치와 상관없이 2글자 들여쓰기</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표 안의 글씨 또는 논문 가운데 긴 인용문을 줄 바꾸어 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글씨 크기 10 point, 줄 간격 130%(MS워드 0.5줄)을 기본으로 작성</li> <li>• 다만, 편집상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 가능</li> <li>• 목차 쓰기는 논문의 본문 쓰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li> </ul>	



## 2. 학위논문 구성 및 순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내용의 체계성과 형식의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은 머리지면, 본문, 참고자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머리지면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감사의 글은 선택사항이며 그림목차, 부록목차, 약어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또한 표, 그림, 부록 이외에 다른 항목이 있을 경우 그 항목에 대한 목차는 부록목차 다음에 수록하도록 한다.

본문은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본문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참고자료는 참고문헌, 부록, 외국어 초록 순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도판 등의 항목도 추가 가능하며 부록 다음에 첨부하도록 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분야
<b>&lt;머리지면&gt;</b> 겉표지 표제면 제출서 인준서 감사의 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부록목차 약어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b>&lt;머리지면&gt;</b> 겉표지 표제면 제출서 인준서 감사의 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부록목차 약어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b>&lt;본문&gt;</b> 서론 본론 결론	<b>&lt;본문&gt;</b>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및 논의 결론
<b>&lt;참고자료&gt;</b> 참고문헌 부록 색인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b>&lt;참고자료&gt;</b> 참고문헌 부록 색인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 3. 학위논문 작성 지침

#### 3.1 인문 · 사회과학분야

##### 1) 머리지면

머리지면에는 겉표지, 표제면, 제출서, 인준서 등 논문의 제출을 위한 기본 양식들이 포함되며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 (1) 겉표지와 책등

논문의 겉표지 앞쪽에는 ①국문 논문 제목 또는 영문 논문 제목(논문의 본문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②소속 대학원 명칭, ③소속 학과 또는 전공, ④논문 제출자의 성명을 쓰고, 책등(논문의 옆면)에는 ①논문제목, ②제출년월, ③논문 제출자의 성명을 쓴다. 이때 페이지 위쪽의 ‘석(박)사 학위논문’ 이라는 어귀와 아래 부분의 소속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 및 제출자의 성명을 쓰는 부분은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 기입하도록 하며, 이를 제외한 가운데 제목 부분은 그 길이에 따라 표지에 적당한 크기로 입력하도록 한다(<별표 1> 참조).

논문의 제목은 그 논문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만 보아도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의 논문 제목은 논문의 공개 발표 또는 예비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연구계획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될 수 있다. 제목은 본문 작성 언어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2) 표제면

겉표지 다음에 흰 종이 한 장을 삽입하고 그 다음 장에 다시 ①국문 논문제목, ②영문 논문제목, ③소속 대학원 명칭, ④소속 학과 또는 전공 명칭, ⑤논문 제출자의 성명을 쓴다. 겉표지와 표제면의 크기는 다르나 모든 양식은 동일하게 작성한다(<별표 2> 참조).

##### (3) 제출서

표제면 다음 장에는 ①국문 논문제목, 또는 영문 논문제목, ②지도 교수 성명, ③제출문, ④논문 제출월, ⑤소속 대학원 명칭, ⑥소속 학과 명칭, ⑦논문 제출자의 성명을 쓴다.



제출일자는 졸업예정 연월(年月)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일(日)자는 작성하지 않는다. 모든 사항은 부록에 제시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논문 제목은 길이에 따라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논문 제출일은 졸업일보다 빠르므로 2월 졸업 예정자는 그 전년도 12월, 8월 졸업예정자는 해당연도 6월로 기입한다(〈별표 3〉 참조).

#### (4) 인준서

제출서 다음 장에는 ①인준문, ②국문 논문제목 또는 영문 논문제목, ③인준 예정일, ④심사위원 서명 공간(석사학위 심사위원: 3명, 박사학위 심사위원: 5명), ⑤소속 대학원 명칭을 쓴다. 인준 예정일은 졸업예정일보다 빠르므로, 2월 졸업예정자는 그 전년도 12월, 8월 졸업예정자는 해당연도 6월로 제출 예정일과 동일하게 기입한다(〈별표 4〉 참조).

#### (5) 감사의 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도교수로서 연구를 직접 지도하거나 연구 수행에 필요한 조언, 자료조사에 협조 등 기타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글이다.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너무 과장되거나 가벼운 투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 감사의 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 (6) 목차

목차는 논문의 윤곽을 드러내는 골격 구조로서, 전체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초록을 번호 매김 하지 않고 차례대로 표시하며 이들의 페이지 수는 로마자 소문자로 표기한다. 그 다음 본문의 목차는 일반적으로 장, 절, 항의 3단계로 분류되며, 각각의 제목 다음에 점선을 긋고, 그 내용이 시작되는 쪽수를 표시한다.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I, II, III, ... 으로 나누며, 하위 단위는 1, 가, 1), 가), (1), (가), ①, ②의 순서로 세분화한다. 기본적으로 위의 사항대로 단위를 나누되,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목차의 순서에는 점선을 긋고 쪽번호를 달아주며, 쪽번호는 페이지의 오른쪽에 맞춰 정렬되도록 한다. 또한 본문 목차 다음에는 참고문헌, 부록, 외국어초록 등을 포함한다(〈별표 5〉 참조).



목차 예시	예시 1 (장, 절, 항 구분)	예시 2 (장, 절, 항 구분)
목 차..... i	I. 서론	제1장 서론
표 목 차..... ii	1.	제1절
그림목차..... iii	1.1	제1항
국문초록.....iv	1.1.1	1.
제1장 서론.....1	1.1.2	2.
제2장 (제목).....10	1.1.2.1	가.
제1절 (제목).....10	1.1.2.2	나.
제2절 (제목).....20	1.1.2.2.1	1)
1. (제목).....20	1.1.2.2.2	2)
2. (제목).....30	II. (본론- 제목)	가)
제3장 (제목).....80	1.	나)
제4장 결론.....100	1.1	(1)
참 고 문 헌.....110	1.1.1	(2)
부 록.....120	1.1.2	①
외국어초록.....130	1.1.2.1	②

### (7) 표목차/그림목차/부록목차

표와 그림, 사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차를 별도로 작성하여 목차 다음에 넣는다 (영어의 경우 LIST OF TABLES, LIST OF FIGURES, LIST OF APPENDICES 등). 이 때 표, 그림 등이 수록된 페이지수를 달아야 한다. 표기순서는 표, 그림 등의 순서로 하되 <표 1>, <표 2>……, <그림 1>……, <사진 1>…… 등과 같이 표기한다.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등은 논문에 나타난 순서대로 목차를 작성한다. 목차를 작성할 때는 표, 그림 등의 제목을 쓰는데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혼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별표 6> 참조).

### (8) 국문 초록

국문 초록은 논문의 전체적 흐름과 논지를 간단히 밝히는 것으로, 읽는 이들에게 논문 전체의 내용과 방향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초록은 논문 양식 용지 2~5매 범위에서 간명하게 작성하되, 독자가 초록 자체만 읽고도 연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국문 초록에 꼭 포함하여야 할 것은 ①논문 제목, ②연구 목적, ③연구 방법, ④중요한 연구 결과 등인데 필요하면 주된 결론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초록에서는 참고문헌을 이용하거나 도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약어의 사용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약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풀어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 다음 두 번째부터 약어를 쓴다(예: 처음에는 “Sodium Dodecyl Sulfate(SDS)” 라고 쓰고, 두 번째부터 “SDS” 라 쓴다).

국문 초록은 논문 마지막 부분의 외국어 초록과의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논문제목, 논문제출자 성명, 학과명, 학교명을 기재할 필요 없다. 논문의 본문 사용언어가 국문 또는 외국어 여부에 상관없이 국문 초록은 국문으로 기술한다(<별표 7> 참조).

---

#### 제39조(논문작성언어) (조명칭변경 및 개정 2008.12.15.)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한 가지 외국어를 선택하여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의 본문이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어 초록과 국문 초록을 작성하며, 논문의 본문이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초록, 국문 초록, 영어 초록을 작성한다.

---



## 2) 본문

### (1) 서론

서론은 연구주제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의 개괄(계승 및 비판)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핵심 문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등에 대하여 기술하는 논문의 도입부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전공 학문상의 특수한 개념어나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논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서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서론은 제1장으로 하고, 서론 첫 장에서부터 논문 1페이지가 시작된다.

### (2) 본론

본론은 논문의 중핵이 되는 부분으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에 의하여 연구자의 발견, 견해, 분석, 주장 또는 반론, 비평 등을 논증 및 논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논술의 논리적 정합성은 본론의 생명이다. 논술의 설득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각주는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되, 논술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주변적인 내용은 각주에서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표나 그림은 논문 기술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 또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결론

결론은 논문의 마무리이므로 연구의 중심적인 결과 또는 발견을 재확인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 또는 언급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토대한 제언 및 건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 ‘본문’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 학위논문 계획 및 작성 방법’ 참조



### 3) 참고자료

#### (1) 참고문헌

참고문헌(Reference)은 본문에서 실제로 인용되거나, 각주에 표시된 문헌과 자료를 목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된 논저는 모두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문헌의 배열은 동양문헌(한, 중, 일, 기타 국가 순서), 서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하며, 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배열한다. 다만, 참고문헌 작성법은 학문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지관리프로그램(RefWorks, EndNote 등) 등을 사용하여 일관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V. 학위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2) 부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을 ‘참고문헌’ 다음에 작성한다. 부록은 주로 부가적 설명, 조사양식, 설문지, 수표, 도표, 법조문, 연표, 지도, 문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식에 사용한 기호나 실험과 관측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 등을 표로 하여 실는 경우 이때에는 이를 부록으로 하거나 부표로 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붙인다. 또 논문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데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일단 기술해 두는 편이 참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분량이 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라 부록으로 뒤에 붙일 수도 있다.

‘부록(Appendices)’ 이라고 쓴 별지를 삽입하지 않고 바로 작성한다. 부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록 1>, <부록 2> 등 (영어의 경우 Appendix 1, Appendix 2 또는 Figure A, Figure B 등)으로 명백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며, 각 부록마다 제목을 달아야 한다.

#### (3) 외국어 초록

외국어 초록은 영어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다른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즉, 논문의 본문이 국문일 경우에는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일하여 기술하고, 논문이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본문에서 사용한 언어와 동일한 외국어 초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을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 초록에는 국문 초록에 나타나 있는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결과 등을 영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하며, 국문 초록과는 달리 상단부에 논문제목, 논문제출자 성명, 전공명, 학교명을 기록해야 한다. 완성된 논문 기준으로 2~5매 범위에서 간략하게 기술한다.

#### (4) 주제어

주제어는 논문의 중심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논문을 검색할 때 색인어로 사용 가능한 단어를 선정하여 초록 끝에 제시한다.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국문 초록 다음에는 국문으로, 외국어 초록 다음에는 해당 외국어로 각각 주제어(Key word)를 쓴다. 주제어는 5~8개의 단어로 작성하며, 요약 다음에 두 줄 띄기 하여 1½ pt 두께의 실선을 긋고 소문자로 작성한다(〈별표 7〉, 〈별표 8〉 참조).



## 3.2 자연과학분야

### 1) 머리지면

※ ‘머리지면’ 관련 작성 지침은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참조하세요.

### 2) 본문

이 부분에서는 자연과학분야 학위논문의 본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규칙을 설명하였다. 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과학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문 성격에 따른 각 분야의 특수한 본문 작성 양식을 확인해야 한다. 그 양식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수 학: 서론, 정의 또는 보조정리, 정리, 적요
  - 통계학: 서론, 개면 정의, 모의실험연구, 결론
  -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약학: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 정보과학: 서론, 배경지식 관련 연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설계, 시스템의 구현 및 결과, 결론 및 향후 과제
  - 의류학: 서론, 문헌고찰, 연구방법 및 절차, 결과 및 고찰, 결론 및 제언
  - 가정학: 서론, 이론적 배경, 가설 설정과 연구 방법론, 결과, 논의, 결론
  - 미술학: 서론, 이론적 배경, 본인 작품의 특성분석, 결론
  - 음악학: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 

이와 같이 자연과학의 학문 성격상 일정한 논문 구성 양식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논문 구성 항목 중에서 집필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론

본문은 서론에서 시작되며 서론의 첫 쪽이 그 논문의 첫 쪽이 된다. 따라서 논문의 쪽 번호를 시작할 때에도 머리지면 부분(목차, 표목차, 그림목차)부터 국문 초록 부분까지는 로마 숫자(소문자)로 표시하고, 본문의 서론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한다.

논문의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 문제설정의 이유,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용어 정의, 연구의 한계점 등이 진술된다. 또한 서론에는 연구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연구문제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밝히게 된다. 그리고 연구문제의 주요 변인에 대한 정의와 연구의 제한점 등을 미리 밝혀둠으로써 논문의 내용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론의 서두에서 연구문제를 처음 제시할 때에는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술어나 개념을 도입하지 말고, 탐색하게 될 연구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일반적 연구동향과 더불어 연구문제의 도출배경을 설명한 후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연구 문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행연구나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므로, 연구문제는 선행연구의 결과나 이론적 배경의 고찰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약어(생략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문요약에서 사용한 것이라도 처음에는 풀어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 다음 두 번째 사용할 때부터 약어로 써야 하며,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논의), 결론 항목에서도 서론에서 이미 사용한 약어는 풀어 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 사용하는 약어가 많을 때에는 약어(Abbreviations)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부록목차 다음에 첨부할 수도 있다.

## (2) 선행연구 조사

선행연구 조사는 이미 연구된 내용이나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을 피하거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가정이나 명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동시에 기존의 관행이나 이론적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선행연구 조사는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회지나 논문을 조사함으로써 연구의 진행상황, 관심문제, 연구방법,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선행연구’ 항목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서론 다음에 바로 ‘재료 및 방법’ 항목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 (3) 재료 및 방법

이 항목은 실험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의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즉, 실험에 사용한 재료의 종류와 출처, 실험 방법 등은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는데, 이는 연구에 사용한 재료나 방법이 비록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자신이 사용한 연구 방법이 자신이 고안한 독창적인 방법일 때는 더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또한 독자가 이 항목을 읽고 연구자가 얻어 낸 연구결과가 올바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재료 및 방법 항목은 실험 재료를 먼저 쓰고 실험 방법을 뒤에 기술하는데, 꼭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방법을 인용 또는 변형하여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을 제시하여야 한다. 실험 재료 및 연구 방법을 기술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실험 재료의 명칭을 쓸 때에는 가급적 과학적 명칭을 사용한다.
- 동물을 표기 할 때에는 Strain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약품 및 화학 물질은 일반명(Nonproprietary name, Generic name)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명이 없는 경우는 Merck Index에 준하여 옳게 써야 한다.
- 실험에 사용한 균주와 중요한 약품 및 실험 장비 등의 이름 뒤에는 구입 출처(제품번호, 제조사, 제조지역, 제조국가 순서)를 명시하여 다른 연구자가 필요할 때 동일한 것을 입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식물 및 미생물의 이름은 속명(Genus name)과 증명(Species name)을 이탤릭체로 써야 하는데, 처음 쓸 때는 속명과 종명을 모두 풀어쓰고 두 번째부터는 속명의 첫 문자와 증명만을 쓴다. (예: “*Escherichia coli*” 를 “*E. coli*” 로)
-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장치가 새로 고안된 것일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그림을 본문 또는 부록에 사용할 수 있다.
- 실험 결과를 통계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한 방법을 참고 문헌과 함께 명기한다.

#### (4) 결과

연구 결과는 논문의 주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를 기술할 때는 필요에 따라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도 있다. 연구 결과는 사용한 재료와 실험 방법에 따라 얻어진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나타내야 하며,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연구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겨진다.

연구 결과는 글로써 모두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들을 그림(Figure)이나 표(Table)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간단히 글로 기술하는 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그림과 표로 중복하여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표 또는 그림으로 제시할 경우는 해당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문 뒤에 괄호를 하고 표 또는 그림의 일련번호를 제시한 순서에 따라 쓴다. 그리고 표와 그림은 해당 연구 결과가 제시한 다음 쪽에 곧 바로 제시하여 읽는 사람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 (5) 고찰

학위논문에서는 결과 항목과 고찰(논의) 항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 및 고찰’로 함께 쓸 수도 있다. 고찰 또는 논의는 연구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학설을 제창하거나, 동일 분야에서 일전에 발표되었던 학설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등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의 서술이다. 따라서 결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나타내는 의미를 동일 또는 관련 분야에서 자신과 비슷한 결론을 보고한 논문은 물론, 다른 결론을 내린 논문들도 충분히 인용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학위논문에서는 고찰이 논리에 맞게 충분히 기술되지 않으면 학위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그와 같은 논문은 단순히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에 불과하게 된다. 고찰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 
- 고찰에서는 서론이나 연구 방법, 연구 결과 항목에서 기술했던 내용을 다시 장황하게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토대로 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다루어 모호한 고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모호한 고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얻은 결과 중 마음에 드는 것만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하여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나 견해를 비판할 때에는 과학적인 증거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부드럽게 비판하여야 한다.
  - 고찰 맨 뒤에는 현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6) 결론

결론은 논문 전체를 요약한 부분으로 연구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에서 다룬 내용을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찰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의 결론에 관한 것은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앞선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핵심적인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의 결론은 가능한 수식어를 제외하고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또한 논문의 전체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요약 부분에서는 문헌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을 내릴 때에는 과거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하도록 하며, 지나친 일반화나 또는 반대로 연구결과의 과소평가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을 쓰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목적, 재료 및 방법은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기술한다.
- 연구의 결과들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기술한다.
- 고찰에서 기술한 내용 중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의 응용 가능성 또는 앞으로의 연구 방법에 대해 간결하게 기술한다.
-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

## 3) 참고자료

※ ‘참고자료’ 관련 작성 지침은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참조하세요.

※ 다만, ‘참고문헌’ 작성 방법은 학문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공별 작성 양식을 확인하세요.



## IV. 학위논문 계획 및 작성 방법

### 1. 연구주제 선정

논문의 주제는 논문이 다루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결하고 선명하여야 하며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논문의 주제는 연구자가 평소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충분한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주제가 독창적이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주어진 여건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로서 자료 수집 및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를 논문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발전 가능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구조 · 작성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구조를 적절히 나누어 체계적, 조직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의 구조는 일정한 하나의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내용과 방법, 특정 기관 및 학문 분야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구조는 크게 서론, 본문,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이들 각 부분은 다시 몇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출처: 박성민, 김선아 (2019). 인문사회과학자를 위한 논문 작성 Handbook.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1 서론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논문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논문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다. 논문에서 <서론>의 역할은 연구의 출발점이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 내용을 제어할 수 있다.

### 서론의 구조

<p>step 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제시</p>	<p>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설명과 함께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요소를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연구 문제를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문제의 참신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 필요</li> <li>• 연구 문제의 중요성: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가치에 대한 고려 필요</li> <li>• 연구 문제의 해결 가능성: 연구자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고려 필요</li> </ul>
<p>step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시</p>	<p>연구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주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색적 연구인 경우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기술</li> <li>• 설명적 연구인 경우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변수 간의 관례를 중심으로 기술</li> </ul>
<p>step 3. 연구의 기대효과 제시</p>	<p>학문적 또는 실무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적 측면: 기존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 향상에 기여, 새로운 사실의 발견 및 새로운 이론 형성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li> <li>• 실무적 측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 제시 및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li> </ul>
<p>step 4. 논문의 구조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논의</li> <li>• 서론 이후에 각 장에서 논의하게 될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li> </ul>



## 2.2 본론

### 1) 문헌 검토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의 중요성 및 차별성을 강조한다. 논문의 문헌 검토 역할은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폭넓게 검토하여, 연구자가 독자들에게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핵심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1) 주요 개념 및 유사 연구에 대한 안내와 2) 기존 문헌으로부터 우수한 점을 수용하고 더 나은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논문에서 인용하는 선행연구 또는 참고문헌 중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을 키 페이퍼(key paper)라고 한다. 이러한 핵심 선행연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식이 있다.

- 
- 감자 캐기 방식: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키 페이퍼 하나를 발견하고, 그 논문에서 인용하는 참고문헌을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이다.
  - 저인망 방식: 특정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선행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정 학술지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논문의 제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 낚시 방식: 특정 단일 검색어를 통해 논문 및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것으로, 포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참고문헌을 검색하는 방식이다.
- 

출처: 신형덕 (2021). 초보 연구자를 위한 쉽고 확실한 논문 쓰기 전략. 서울: 시그마프레스.



■ 문헌 검토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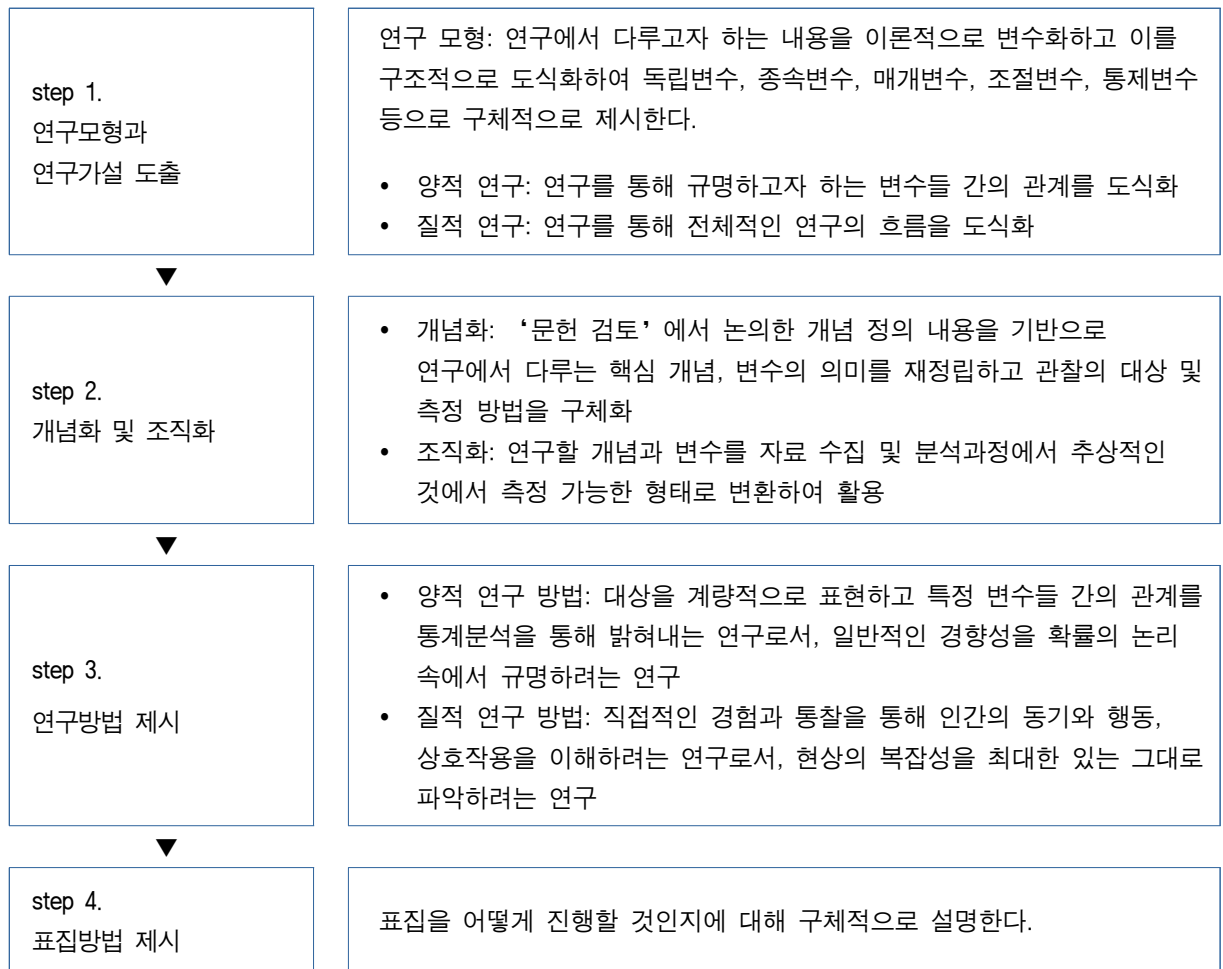




## 2) 연구 설계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연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저자가 효과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구 설계의 구조





### 3) 실증 분석

연구와 관련된 실제적인 자료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 실증 분석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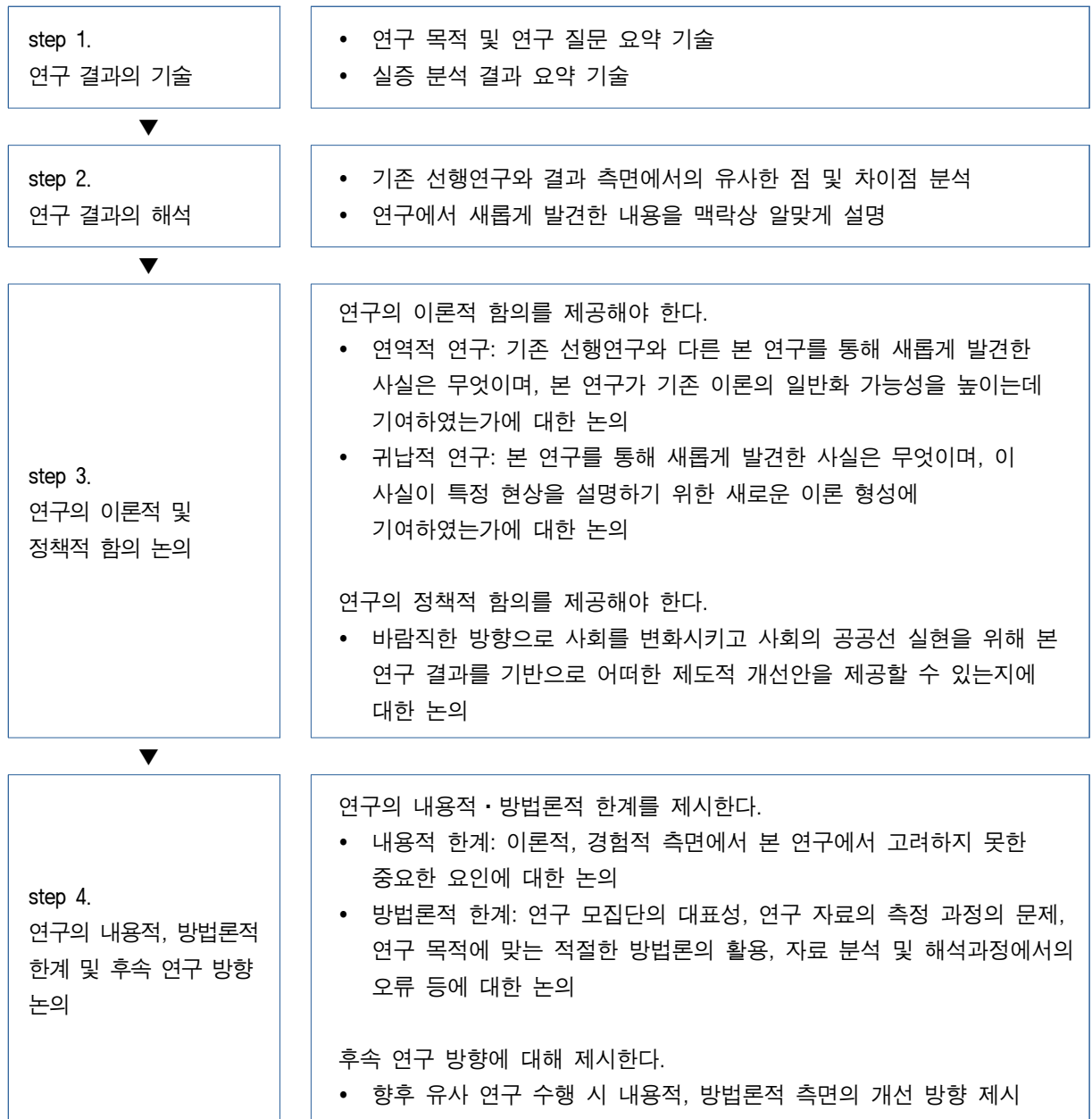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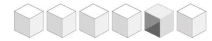


## 2.3 결론

연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분석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이론적 또는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를 제시하여 독자가 다시 한번 해당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끌어내고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다.

### 결론의 구조





### 3. 자료조사 및 학술정보원 검색

자료는 연구자들의 전공분야와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문헌자료만이 아니라 실험이나 관찰 또는 현장조사 등으로 얻어지는 자료, 개인이나 집단과의 면담에서 얻어지는 사실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자료의 수집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조사는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의 독창성 여부를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착상을 제공해주고, 연구결과의 객관적인 분석에도 도움을 준다.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 통계 자료, 정부간행물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https://lib.sookmyung.ac.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 1) 정보원: 1차 자료와 2차 자료

정보원은 생성과 가공방법에 따라 1차 정보(1차 자료)와 2차 정보(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정보원(Primary material)은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보, 본질적인 정보 혹은 창작한 정보를 담은 것이다. 즉, 원 저작물을 의미한다. 2차 정보원(Secundary material)은 여러 가지 1차 정보를 종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요약하거나 재편성하여 제공하는 정보원을 말하며, 전자형태로 목록과 색인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지\*데이터베이스도 이에 속한다.

정보원의 유형	내용
1차 정보 (1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저자에 의하여 발표되는 원 저작물을 의미</li> <li>• 2차 자료에 의해 검색 및 평가되는 자료: 학술지, 회의자료, 보고서, 출판 전 배포기사, 학위논문, 특허정보, 표준과 규격자료, 정부간행물, 단행본(도서) 등</li> </ul>
2차 정보 (2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자료로서, 1차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압축·정리해서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li> <li>•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존재와 그 소재위치를 알리는 검색도구: 참고문헌류, 색인, 초록, 서지와 목록, 백과사전, 명감, 연감, 핸드북, 비평기사, 해제 등</li> </ul>

\*서지(bibliography)란 개개의 자료(도서, 논문, 기타 자료)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여러 가지 서지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일정하게 배열·편성한 것으로, 서지사항(서지요소)은 표제(제목), 저자명, 판차, 발행처, 발행년, 크기, 부록, ISBN, 가격 등과 같은 그 자료의 내용적·형태적 속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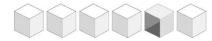
## 2) 학술자료 검색

정보검색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연구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지식)를 찾아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학술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 글로 쓰인 형태를 주로 문헌으로 정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가 융합된 형태로 등장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로 유형을 확장한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JoVe Science Education([www.jove.com](http://www.jove.com))은 의·생명 분야의 비디오 저널로 실험 과정이 중요한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protocol 등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 • 자료검색 단계

학술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 키워드 및 데이터베이스 선정 등 체계적 검색 전략과 기법이 필요하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학술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 
- 연구 핵심 질문의 선정 및 주요 키워드(Keyword) 추출
  - 검색어 선정
  -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 1차 검색 및 검색 결과 검토 (검색된 문헌의 양, 관련 키워드 등을 1차 검토)
  - 1차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어 수정보완 및 검색어 조합방법 등 검색전략 결정
  - 2차 검색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선정
  - 2차 검색 시행: 검색결과 확대와 제한(Refine)
  - 문헌 선택 및 서지요소 반출(Export)/관리
-



• **검색 연산자**

자료조사 과정에서 불리언 연산자(Boolean operators) 및 기호 연산자를 활용하여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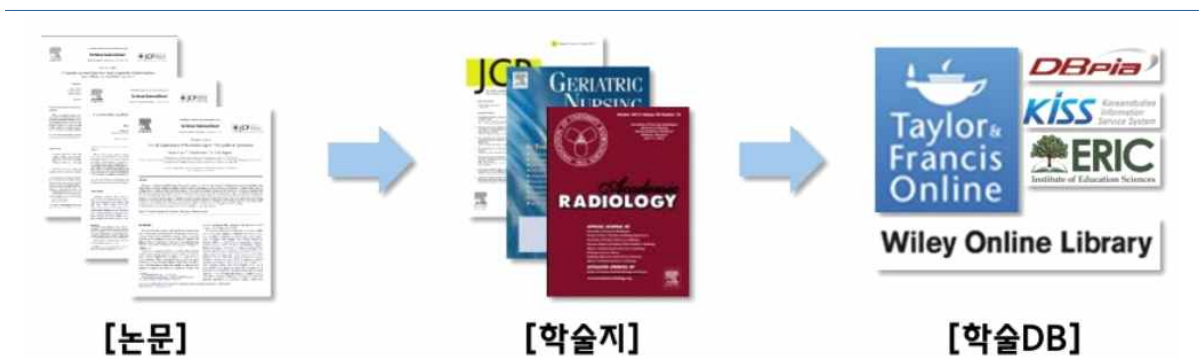
연산자	구분	내용
불리언 연산자 (Boolean Operators)	A AND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와 B가 함께 포함된 자료 검색</li> <li>DB에 따라 검색어 사이의 띄어쓰기를 AND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li> <li>예: Travel AND Europe</li> </ul>
	A OR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와 B 중 하나만 포함되어도 검색</li> <li>예: 기업, 회사에 대해 검색 Business OR Enterprise OR Company OR Corporation</li> </ul>
	A NOT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는 포함하되, B는 포함하지 않는 자료 검색</li> <li>예: Television NOT Cable</li> </ul>
	불리언 연산자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리언 연산자는 보통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검색식을 구성</li> <li>예: Tobacco AND Cigarettes NOT Weed</li> <li>예: (COVID 19 OR Coronavirus) AND Social Distance</li> <li>※주의사항: AND 연산자가 OR 연산자보다 우선함 OR을 먼저 적용하고 싶은 경우 괄호( ) 활용</li> </ul>
기호 연산자	구문검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문 형태로 단어와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검색</li> <li>검색 연산자가 포함되는 구문</li> <li>예: “Big data” , “Merger and Acquisition”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li> <li>예: “Education reports” 로 검색 시 “Report education” 은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음</li> </ul>
	와일드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어 앞 또는 뒤에 0 글자 이상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li> <li>단어가 다양한 형태의 파생어로 쓰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li> <li>예: Child* - Child, Children, Childcare 모두 검색 키워드에 포함</li> <li>예: Volunt* - Volunteer, Volunteering, Voluntary 모두 포함</li> <li>예: *Carbon* - Hydrocarbon, Polycarbonate 모두 포함</li> </ul>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snu.ac.kr/>>



## • 학술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필요에 의해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 일정한 형태로 저장해 놓은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며, 학술데이터베이스는 전 주제 또는 특정 주제 분야의 논문, 리뷰, 레포트, 기사, 학위논문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학술 DB는 논문의 원문(Full text)을 DB로 구축한 원문 DB와 논문의 서지 및 인용정보를 DB로 구축한 서지·인용색인 DB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DB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므로 웹DB라 부르기도 한다.



출처: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s://researchguide.cau.ac.kr/searching/database>>

학술데이터베이스는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자료검색] > [전자자료] > [학술DB]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교내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외에서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 학술DB

홈 > 자료검색 > 전자자료 > 학술DB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정렬순서 조회

총 138 건, 1/2 페이지

품목명	바로가기	제공사	설명	제공 타이틀리스트	이용안내
ACM Digital Library	<a href="#">URL</a>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b>[RISS에서 오후 4시 이후 무료查看全文]</b>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출판되는 컴퓨터 공학분야 학술지의 원문 제공	<a href="#">Search</a>	<a href="#">URL</a>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sookmyung.ac.kr/search/ers/ersPackList?spt=007&mld=101030200>>



• 서지 · 인용색인데이터베이스

인용색인(Citation index)이란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논문에 작성된 참고문헌 즉, 인용문헌 (Citing papers)을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분야 인용색인은 Web of Science와 Elsevier의 Scopus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제공사)	내용
Web of Science(WoS) (Clarivatae Analy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대 저널 색인화 시작</li> <li>• 과학,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의 주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와 인용정보 제공</li> <li>• 과학기술분야 인용색인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온라인 확장판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사회과학분야 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인문예술분야 인용색인 A&amp;HCI(Arts &amp; Humanities Citation Index) 제공</li> </ul>
Scopus (Elsev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용색인은 1995년 이후 데이터부터 적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및 특허정보, 웹정보를 동시에 제공</li> <li>• 세계 최대 규모의 웹DB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전 주제 분야 학술정보를 수록한 세계 최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li> </ul>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지식정보활용 백문백답.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Clarivatae Analytics는 1973년부터 SCI의 인용문헌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값을 산출한 Journal Citation Report(JCR) 발간하였다. JCR은 WoS의 SCIE, SSCI, A&HCI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각 주제분야별 학술지의 순위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JCR에서 제공하는 IF는 학술지의 중요도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1963년 영향력지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IF는 SCIE와 SSCI에 색인된 저널에만 부여되며, 직전 2년 동안 출판된 논문과 그 논문이 측정하고자 하는 연도에 인용된 횟수(피인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IF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술지의 영향력 지표로, 저널의 주제분야 내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4. 수집자료의 평가

수집한 자료가 논문 주제에 적절한 것인가를 잘 평가하여야 한다. 수집한 자료의 평가가 잘못되어 부적절한 자료가 논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시간 낭비와 함께 논문의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참고자료 및 문헌조사에서 얻은 정보와 실험이나 관찰, 현장조사, 면담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취합·정리·기록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참고정보원(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는 1) 형식(인쇄본의 물리적 특성, 전자자료 검색의 효율성 등), 2) 출판사 권위, 3) 편찬 목적 및 수록범위, 4) 최신성, 5) 취급(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표현 형식), 6) 배열(주제 배열, 색인 등), 7) 유사한 다른 저작과의 관계, 8)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웹을 통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내용
권위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명성 및 제공하는 정보 소스의 품질 등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권위와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li> </ul>
수록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주제분야에 적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수록 정보의 출판년도, 지역 등 정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li> </ul>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표기가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기준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데이터 표현의 정확성, 데이터 기술의 정확성(철자 오류, 누락 등) 등을 평가해야 한다.</li> </ul>
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레코드의 내용이 원 자료의 중요한 속성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레코드 구조의 적합성(레코드의 필드 구조의 완전성), 데이터 기술의 완전성, 레코드의 고유성(비중복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li> </ul>
최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신 레코드의 규모 등 최근에 출판된 자료에 대한 레코드를 어느 정도 수록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li> </ul>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코드 구조의 일관성, 데이터 표현의 일관성, 데이터 기술의 통일성 등 레코드의 구조와 데이터의 표기가 목록규칙을 준수하며 일관된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li> </ul>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지식정보활용 백문백답.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5. 자료정리: 서지관리도구 활용

서지관리프로그램은 온라인상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등으로부터 인용 혹은 참고한 자료를 정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PDF,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저장·조직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지관리프로그램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RefWorks, EndNote, Zotero 등이 있다. RefWorks는 참고문헌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학회 및 저널의 서지기술원칙에 따라 참고문헌의 자동생성을 지원하는 서지관리도구로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참고문헌관리] 에서 사용가능하다.

### 참고문헌관리

↑ >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참고문헌관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RefWorks는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참고문헌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학회 및 저널의 서지 기술원칙에 따라 참고문헌의 자동생성을 지원하는 서지 관리도구입니다.

#### ▪ RefWorks 주요 기능

-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아티클, 논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 국내외 학회 및 저널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Word 및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하여 특정 학회·저널 형식에 맞게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참고문헌 레코드에서 **FindIt@Sookmyung**(복사신청) 을 이용하여 원문과 손쉽게 연결됩니다.
- 다른 연구자와 RefWorks의 참고문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RefWorks 이용방법

- RefWorks 홈페이지에서 개인계정을 생성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RefWorks 홈페이지 [바로가기](#)
- Refworks 계정생성 [바로가기](#)
- RefWorks 이용안내 [바로가기](#)
- RefWorks 매뉴얼 [바로가기](#)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sookmyung.ac.kr/local/html/refworks>>

이외에도 서지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EndNote, Zotero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EndNote는 학술자료(논문, 도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의 정보와 Full text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저장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참고문헌 형식(ACS, APA style 등)에 따라 인용과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Zotero는 서지 데이터와 관련 연구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서지관리도구로서 논문 본문의 인용문, 각주 및 서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 V. 학위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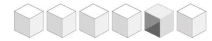
### 1.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법

#### 1) 인용문헌

논문에서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가져와 연구자 자신의 주장이나 이론을 정당화시키고 입증하는 행위이다.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글을 원전 그대로 제시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 방식에는 다른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인용과 다른 연구자가 쓴 글의 내용이나 뜻을 요약, 바꿔 쓰기 등을 통해 전달하는 간접 인용이 있다.

구분	내용
직접 인용 (Quo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할 경우: 큰 따옴표( “ ” )를 하고 출처를 표기 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양적으로 존재하며, 무엇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그것의 질뿐만 아니라 양까지도 안다는 것이다” (Thorndike, 1918, p.16) 라는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li> <li>3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li> </ul>
간접 인용 (C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 따르면, ~에 의하면, ~의 견해를 정리하면, -는 ~(이)라고 말한다’ 와 같이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지가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하고 출처 표기 예: Gronlund와 Linn(1990)에 따르면... 예: 수업평가는 판단의 근거에 따라 교수능력평가, 교수수행평가, 교수효과성평가로 분류되기도 한다(Medley et al., 1982). 예: 결과타당도가 제기되면서 결과타당도를 타당도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성태제, 1999; Linn, 1997; Mehrens, 1997).</li> <li>간접인용을 하더라도 원문의 독특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단어나 어구에 인용부호( “ ” )를 표시하고 출처 표기</li> </ul>



구분	내용
재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해야 할 때는 출처에 ‘재인용’ 또는 ‘Quoted in’ 이라고 표시해야 함 예: 성태제(1999, 재인용)는 ...라고 하였다. 예: ...서비스들이 그 대상이었다(McMullen, 1978: 재인용 Shoham, 1998, p.39).</li> <li>• 재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자가 원문의 논점, 의도와 일치하게 작성했는지, 해석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재인용해야 하며 달라진 관점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음</li> </ul>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지식정보활용 백문백답.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용문헌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1) 본문 중에서 인용문이나 또는 주(註, Note)의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2) 논문에서 인용된 모든 자료를 논문 뒷부분에 참고문헌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주(註)는 본문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거나 인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주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논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주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참조주(Reference content notes)와 내용주(Contents notes)로, 제시하는 위치에 따라 각주(Footnotes)와 미주(Endnotes)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주를 작성하는 방법은 전공 또는 연구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전공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주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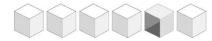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기능에 따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조주: 인용하거나 참고한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용 후 원괄호 안에 인용문헌의 저자명과 연도를 기입</li> <li>• 내용주: 논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예: 특수한 용어나 공식)</li> </ul>
위치에 따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주: 본문에 주의 번호를 표시하고, 본문 하단에 주의 번호와 일치하는 인용 문헌의 서지사항 기재</li> <li>• 내주: 본문에 ‘저자명, 발행년, 인용면수’ 등을 ( )에 묶어 기재</li> <li>• 미주: 본문에 주의 번호를 표시하고, 논문의 뒷부분에 주 번호와 일치하는 자료의 서지사항을 각주와 참고문헌을 혼합한 형식으로 기재</li> </ul>



## 2)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하며,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학문분야 및 전공, 학술기관이나 저널 등에 따라 요구되는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연구자는 전공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문헌의 학문분야별 대표 양식은 다음과 같으나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APA(7th) 양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분	내용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LA (Modern Language Association) style</li> <li>-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연구논문 작성 지침</li> <li>- 인문학 및 언어학분야에서 주로 사용</li> </ul>
사회과학/ 자연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yle</li> <li>-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규정 지침</li> <li>- 사회과학분야 및 자연과학분야 등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참고문헌 작성 표기법</li> </ul>
문학/역사학/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M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style</li> <li>- Chicago University 출판부가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체제와 형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한 한 장 분량의 기준이 모태가 됨</li> <li>- 인문학 및 예술분야,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에서 선호</li> </ul>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style</li> <li>-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학술논문작성 지침</li> <li>-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li> <li>- 본문 내 인용 순서대로 소괄호 안 또는 위첨자에 번호를 표기</li> </ul>
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style</li> <li>- Chicago Style을 기반으로 한 작성 지침</li> <li>- 전자, 통신, 컴퓨터, 정보기술 등의 공학 분야에서 선호</li> <li>- 본문 내에서 대괄호([ ]) 안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표기하며, 논문 끝에 번호 순으로 참고문헌 목록 정리</li> </ul>



본문에서 인용된 자료에 대한 인용문을 기술하고 나면, 참고문헌에서는 인용된 정보원에 대한 저자명, 서명(제목), 발행사, 발행년 등 완전한 서지정보를 제시하게 된다. 참고문헌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자료의 유형에 따른 참고문헌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 • 참고문헌 작성 기본 원칙

참고문헌의 기재는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을 구분하며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한다. 저자명(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알파벳순)으로 정렬하고, 동일 저자에 의한 저작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한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디지털 콘텐츠 소유 및 제공자 등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 콘텐츠의 주소나 위치가 바뀌어도 쉽게 검색 가능하다.

구분	내용
기본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ook</b> Author, A. A., &amp; Author, B. B. (Year). <i>Title of the book</i>. (Edition). Publisher. (APA 7판부터 출판지 정보 생략)</li> <li>• <b>Journal Article</b> Author, A. A., &amp; Author, B. B. (Year). Title of the article. <i>Title of the Journal</i>, <i>Volume</i>(Issue), Page range. DOI or URL</li> </ul>
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자명은 국내를 포함한 중국, 일본 저자의 경우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고, 서양 인명은 성(last name), 콤마(,) 이름의 순으로 기재하고 성 이외의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은 두문자만 표기 예: Achterberg, J. (1985). <i>Imagery in healing</i>. Shambhala Publications. 예: 이수상 (2008). 디지털도서관운영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li> <li>•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저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하고 각 저자는 콤마(,) 로 구분. 서양 저자의 경우 마지막 저자의 이름 앞에 “, &amp;” 표기 예: Baider, L., Uziely, B., &amp; Kaplan De-Nour, A. (1994).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and guided imagery in cancer patients. <i>General Hospital Psychiatry</i>, 16(5), 340-347. <a href="https://doi.org/10.1016/0163-8343(94)90021-3">https://doi.org/10.1016/0163-8343(94)90021-3</a> 예: 전경선, 이지수 (2022). 전자책 서비스 중심의 병영도서관 활성화 방안. <i>한국비블리아학회지</i>, 33(3), 295-324. <a href="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295">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295</a></li> </ul>



• 참고문헌 유형별 작성 원칙

구분	내용
<p>단행본 /번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i>Title of book</i>. Publisher. DOI or URL</b>                예: Brown, L. S. (2018). <i>Feminist therapy</i>.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 href="https://doi.org/10.1037/0000092-000">https://doi.org/10.1037/0000092-000</a></li> <li>• <b>(단행본) 저자명 (발행년). 서명. (판사항). 발행지: 발행사.</b>                예: 정필모 (2011). <i>문헌정보학원론</i>. (개정 5판). 서울: 한국학술정보.</li> <li>• <b>(번역서) 원저자명 (발행년). 번역서명 (번역자). 발행지: 발행사. (원서출판년)</b>                예: Freud, S. (2010). <i>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he complete and definitive text</i> (J. Strachey, Ed. &amp; Trans.).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00)                예: 미국심리학회 (2013). <i>APA 논문작성법</i> (강진령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0).</li> <li>• <b>(재인용) 원문의 서지사항을 기재하고 뒤에 '재인용: ' 표기와 함께 기재</b>                예: Barden, B. R. (1937). <i>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with a Basic Code Rules</i>, 9. 재인용: 김명옥 (1986). <i>자료분류법</i>. 서울: 구미무역, 223.</li> </ul>
<p>학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uthor, A. A., &amp; Author, B. B. (Year). Title of the article. <i>Title of the Journal, Volume(Issue), Page range</i>. <a href="https://doi.org/xxxxx">https://doi.org/xxxxx</a></b>                예: Ball, T. M., Shapiro, D. E., Monheim, C. J., &amp; Weydert, J. A. (2003). A pilot study of the use of guided imagery for the treatment of recurrent abdominal pain in children. <i>Clinical Pediatrics</i>, 42(6), 527-532. <a href="https://doi.org/10.1177/000992280304200607">https://doi.org/10.1177/000992280304200607</a></li> <li>• <b>저자명 (발행년). 논문제목. 학술지(저널)명, 권(호), 수록 면수. DOI or URL</b>                예: 장윤금, 전경선, 이해영, 이지수 (2018). 병영도서관 이용 및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i>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i>, 49(3), 241-261. <a href="https://doi.org/10.16981/kliss.49.3.201809.241">https://doi.org/10.16981/kliss.49.3.201809.241</a></li> </ul>
<p>학위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i>Title of dissertation</i>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thesis, Name of University]. Database Name. URL</b>                예: Hutcheson, V. H. (2012). <i>Dealing with dual differences; Social coping strategies of gifted an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adolescents</i> [Master's thesis, The College of William &amp; Mary]. William &amp; Mary Digital Archive.  <a href="https://digitalarchive.wm.edu/bitstream/handle/10288/16594/HutchesonVirginia2012.pdf">https://digitalarchive.wm.edu/bitstream/handle/10288/16594/HutchesonVirginia2012.pdf</a></li> <li>• <b>저자명 (발행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학위수여기관명.</b>                예: 전경선 (2018).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li> </ul>



구분	내용
전자정보원 /웹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nline News/Magazine Articl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thor, A. A. (Year, Month Date). Title of the article. <i>Title of the online newspaper or publication</i>. URL</li> </ul> <p>예: Rogers, O. (2021, July 9). Why naming race is necessary to undo racism. <i>Psychology Today</i>. <a href="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who-am-i-who-are-we/202107/why-naming-race-is-necessary-undo-racism">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who-am-i-who-are-we/202107/why-naming-race-is-necessary-undo-racism</a></p> </li> <li>• <b>Web Pa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thor, A. A. (Year, Month Date). <i>Title of page or section</i>. Source. URL</li> </ul> <p>예: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d.). <i>Preventing HPV-associated cancers</i>. <a href="https://www.cdc.gov/cancer/hpv/basic_info/prevention.html/">https://www.cdc.gov/cancer/hpv/basic_info/prevention.html/</a></p> <p>※ (n.d.) 연도미상 (no date)</p> </li> </ul>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udiovisual Medi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rector, D. D. (Director). (Year). <i>Title of work</i> [Description]. Production Company. URL</li> </ul> <p>예: Fosha, D. (Guest Expert), &amp; Levenson, H. (Host). (2017). <i>Accelerated experiential dynamic psychotherapy (AEDP) supervision</i> [Film; educational DV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 href="https://www.apa.org/pubs/videos/4310958.aspx">https://www.apa.org/pubs/videos/4310958.aspx</a></p> <p>예: Jackson, P. (Director). (2001). <i>The lord of the rings: The fellowship of the ring</i> [Film; four-disc special extended ed. on DVD]. WingNut Films; The Saul Zaentz Company.</p> <p>예: 오성운 (감독). (2011). 마당을 나온 암탉 [비디오녹화자료]. 케이미디어.</p> </li> <li>• <b>정부보고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thor, A. A. (Date of publication). <i>Title of work</i> (Report No. xxx). Publisher. DOI or URL</li> </ul> <p>예: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8). <i>Facing forward: Life after cancer treatment</i> (NIH Publication No. 18-242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 href="https://www.cancer.gov/publications/patient-education/life-after-treatment.pdf">https://www.cancer.gov/publications/patient-education/life-after-treatment.pdf</a></p> <p>예: 홍수동 (1999). 한국의 언론인 (조사분석 99-03). 한국언론재단.</p> </li> <li>• <b>학회 논문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thor, A. A. (Date of publication). <i>Title of contribution</i> [Type of contribution]. Conference Name, Location. DOI or URL</li> </ul> <p>예: Maddox, S., Hurling, J., Stewart, E., &amp; Edwards, A. (2016, March 30-April 2). <i>If mama ain't happy, nobody's happy: The effect of parental depression on mood dysregulation in children</i> [Paper presentation].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62nd Annual Meeting, New Orleans, LA, United States.</p> </li> </ul>



## 2. 논문기재방식

연구논문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논리정연하게 서술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장의 표현은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진술하며, 문학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다음의 논문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내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논문의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의 문장은 ‘~다’ 로 끝맺는다.</li> <li>• ‘~습니다’, ‘~어요’ 는 논문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li> </ul> 예: 최근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o) 최근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x) 최근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x)
축약 및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에서 구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li> </ul> 예: 그건 (x), 그것은 (o), 예: 학교에선 (x), 학교에서는 (o) 예: 근데 (x), 그런데 (o)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에서 높임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li> </ul> 예: 최승호(2015)에서는~라고 언급하였다. (o) 최승호 교수님(2015)께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x)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부정보다 긴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li> </ul> 예: 걱정 안 했다. (x), 걱정하지 않았다. (o) 예: 포함 못했다. (x), 포함하지 못했다. (o) 예: 발견 못 했다. (x), 발견하지 못했다. (o)
‘나’ 라는 표현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에서는 1인칭 대명사를 쓰면 내용이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에, 이글, 본 논문, 본고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li> </ul> 예: 이 글에서는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o) 나는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x)



논문에서 내용 구성별 표현을 알아두면 읽거나 쓸 때 편리하며 명확한 문장을 기술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글의 목적은 ~데에 있다.</li> <li>• 본고는 ~는데 목적을 둔다.</li> <li>•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논하겠다/ 고찰할 것이다.</li> </ul>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위해 ~이/가 필요하다.</li> <li>• ~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li> <li>• ~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li> </ul>
연구 배경 (현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 따르면 ~는 추세이다.</li> <li>• ~는 경향이/양상을 보인다.</li> <li>• ~점이 발견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li> </ul>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는데 어려움이/애로점이 있다.</li> <li>•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li> <li>• ~에 대해서 ~고 있는 실정이다.</li> </ul>
기존 연구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li> <li>•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반면...</li> </ul>
선행 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지금까지/그간의 논의에서는...</li> <li>• ~대해서는 ~가 대표적이다.</li> <li>• ~를 비롯하여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li> </ul>
이론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논문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li> <li>• ~에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을 보기로 한다.</li> <li>• ~의 이론에 기대어 ~ 겠다.</li> </ul>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방법론에 따라</li> <li>• ~을 적용하여</li> <li>•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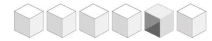


구분	내용
연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li> <li>•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다.</li> <li>• ~을 대상으로 살펴본다.</li> </ul>
연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li> <li>• 다음의 순서로 ~을 살펴보고자 한다/논의를 진행한다.</li> <li>• 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li> </ul>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이상으로 ~에 대해 고찰하였다.</li> <li>• 을/를 통해 ~ 것을 알았다/밝혔다/발견하였다.</li> <li>• ~라고 볼 수 있다/해석할 수 있다.</li> </ul>
연구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연구의 성과는 ~에 기여할 것이다.</li> <li>• 이 연구의 결과는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li> </ul>
연구의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자 하였으나~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li> <li>• ~는 것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다.</li> <li>• ~라는 점에서/측면에서 한계가 있다.</li> </ul>
후속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향후 ~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li> <li>• 본고에서 미처 ~지 못한 부분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li> <li>•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li> </ul>

출처: 이윤진 (2021). 논문작성연습. 한국문화사.

## • 숫자, 단위 형식 및 약어

논문에서 사용되는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가능한 SI(국제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또는 CGS(Centimeter Gram Second)기호로써 표기한다. 단위와 술어의 약어는 각 전공분야나 그 전공분야가 소속한 전문 학술단체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른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문에 처음 나올 때 설명하여야 한다.



• 표 및 통계표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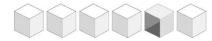
표(Table)는 숫자로 된 통계 자료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논문에 제시한 여러 가지 유사한 사실들을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나타내는 수단이다.

학위논문이란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 읽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에 의한 서술만으로 충분히 연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때에는 굳이 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글로 표시하려면 여러 쪽에 걸쳐 서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운 자료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표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표로 나타냄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고 간결한 논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 표와 그림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그만큼 문장을 줄이면서도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구분	내용
기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의 여백은 한글 기준 130%, 표의 제목 및 내용 글씨 크기 10point</li> <li>- 논문 편집상 편의를 위해서 여백 및 글씨 크기 조정 가능</li> <li>• 표의 제목은 진한 글씨로 작성</li> </ul>
표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는 본문에서 표에 관한 언급이 있는 후, 다음 쪽에 쪽 당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li> <li>• 한쪽에 하나의 표를 작성할 경우 표는 좌우 간격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하되, 상하는 가운데 정렬하지 않고, 페이지 여백을 제외한 가장 위쪽에 위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표에 관한 언급이 있는 직후 같은 쪽에 본문과 함께 나타낼 수도 있음</li> <li>• 표에 관한 언급이 있는 위치가 지면의 아래쪽에 있어 표 전체를 그 쪽에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지면에 여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본문의 줄거리를 그 쪽 끝까지 쓴 다음, 그 다음 장 첫머리에 표를 넣는 것도 가능</li> <li>• 한 쪽 전체를 차지하는 표를 제시해야 할 경우에도 본문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다음에 그 쪽 끝까지 본문의 다른 줄거리를 쓰고, 다음 쪽에 표를 작성</li> </ul>



구분	내용
<p><b>폭이 한 쪽을 넘는 표의 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이 넓은 표는 세로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의 제목이 논문의 왼쪽 측, 논문 제본 시 봉합하는 쪽으로 해야 함</li> <li>- 표를 세로로 처리할 때에도 쪽번호는 본래 위치에 그대로 작성</li> </ul> </li> <li>• 폭이 너무 넓어서 세로로도 다 넣을 수 없으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좌우의 두 면을 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양면의 동일한 지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면의 앞쪽에는 쪽수를 부여하지 않고, 표가 있는 뒤쪽에 쪽수를 부여</li> </ul> </li> <li>• 앞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표의 크기가 클 때에는 큰 종이를 사용한 후 종이를 접어 본문의 종이 크기와 규격을 같게 함</li> </ul>
<p><b>길이가 한 쪽을 넘는 표의 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쪽 이상의 길이를 가진 표는 여러 쪽으로 나누어 연속하여 작성</li> <li>• 이때 표의 번호와 제목은 나눠진 표의 맨 앞장에 달아주고, 첫 번째 쪽의 마지막 줄 오른쪽 끝에 원괄호 안에 ‘뒷쪽에 계속’ (또는 to be continued) 이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표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시</li> </ul>
<p><b>표의 번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문에 나오는 표의 번호는 본문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li> <li>• 자연과학 논문에서는 본문은 국문으로 쓰더라도 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문으로 작성할 때는 표의 번호를 &lt;Table 1&gt;, &lt;Table 2&gt;, ... 등으로 표기</li> <li>- 국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lt;표 1&gt;, &lt;표 2&gt;, ... 등으로 표기</li> <li>- 반드시 표의 상단 좌측 줄 맨 앞에서부터 작성</li> </ul> </li> </ul>
<p><b>표의 제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의 제목은 표의 위쪽에 위치해야 함</li> <li>• 표의 번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운 후 바로 표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표 아랫부분에 작성</li> <li>• 표의 제목은 표의 폭보다 길 때에는 두 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표의 우측 끝까지 채운 다음에 윗줄의 제목 지점에 맞추어 새로운 줄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때 줄간격은 본문의 줄간격 보다 좁아도 무방</li> <li>- 제목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하며, 제목이 두 줄 이상이 될 때에는 영문이든 국문이든 한 단어를 서로 다른 줄로 분철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li> </ul> </li> </ul> <p>예: &lt;표 1&gt; 국문논문의 국문 초록</p> <p>예: &lt;표 2&gt; 표의 제목은 표의 폭보다 길 때에는 두 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표의 우측 끝까지 채운 다음 윗줄의 제목 지점에 맞춤</p>



구분	내용
<p><b>표의 경계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의 제목과 표 사이에는 간격을 한 줄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표를 작성할 때는 가로줄만 사용하고, 세로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세로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li> <li>• 표의 가장 위와 가장 아래에 있는 가로줄 및 항목과 내용을 나누는 선은 1½ pt 두께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½ pt 두께로 작성</li> <li>- 표가 여러 쪽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표의 아랫줄을 맨 마지막 쪽에서만 긋고 나머지 쪽에서는 생략</li> </ul>
<p><b>표의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에 대한 설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를 다른 문헌에서 인용했을 경우에 그 출처를 각주로 밝히고,</li> <li>- 표 전체에 대한 설명(예: 연구방법 등)을 간단히 하여 읽는 사람이 본문은 보지 않더라도 표가 나타내는 연구결과의 도출과정을 알 수 있게 하고,</li> <li>- 표에 사용한 약어나 기호 등을 각주로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li> </ul> </li> <li>• 표에 각주를 달 때에는 1), 2), 3) 등을 위첨자로 나타내며, 위첨자와 설명 내용 사이에는 띄어 쓰지 않고, 연속적으로 작성</li> <li>• 통계분석의 유의수준 <math>p &lt; 0.05</math>, <math>p &lt; 0.01</math>, <math>p &lt; 0.001</math>은 *, **, ***의 표시를, 다중범위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li> <li>• 개개의 각주 설명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어야 함</li> </ul>
<p><b>쪽수 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만 들어 있는 쪽도 본문의 쪽에 연속시켜서 쪽수를 나타내고, 표가 너무 넓어 양면(Facing page)까지 사용하여 표를 작성했을 때는 표가 있는 양쪽 모두에 쪽수 표시</li> <li>• 표가 너무 커서 표가 포함된 쪽을 접었을 때는 접힌 지면의 중앙에 쪽수 기입</li> </ul>



## • 그림 (Figure)

그림(Figure)은 표(Table)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를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나타냄으로써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동일한 결과를 다시 표로 중복하여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구 논문에 사용되는 그림에는 그래프, 사진, 지도, 다이어그램, 차트, 모식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각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작성 방법이 있겠으나 본 장에서는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원칙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분	내용
그림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은 본문에서 그림에 관한 언급이 있는 후, 다음 쪽에 쪽 당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li> <li>• 논문에 따라서는 연구결과로 얻어진 모든 그림(특히 사진)을 “결과” 항목 맨 뒤의 한 곳에 작성하기도 함</li> <li>• 미술대학에서 도판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부록 다음에 도판을 삽입할 수도 있음</li> </ul>
그림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자료나 결과를 직접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는 논문의 지면 크기를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li> <li>• 연구 자료나 결과를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차트, 모식도 등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적절히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도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싱 종이(Tracing paper)에 제도용 검은 잉크를 사용하여 손으로 그린 다음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적당한 크기로 인화하여 사용</li> <li>• 연구 논문의 그림을 작성할 때에는 연구결과 중 색깔을 꼭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색깔의 사용을 금하고, 한 그림 안에서 성격이 서로 다른 부분을 비교하거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을 사용하거나, 명암을 달리하는 방법 사용</li> <li>• 꺾은 선형의 차트를 그릴 때에는 항상 데이터계열 서식에서 표식을 사용하여 꺾은점을 원형 또는 삼각형, 사각형 등의 심볼(Symbol)로 표시해야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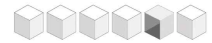


구분	내용
<p><b>그림의 번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의 번호는 논문 전체를 통하여 표되는 별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표기</li> <li>• 자연과학분야에서는 그림 설명을 영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림 번호도 &lt;Figure 1&gt;, &lt;Figure 2&gt;, ... 등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연구 분야에 따라 국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lt;그림 1&gt;, &lt;그림 2&gt;, ... 등으로 표기</li> <li>• 그림의 번호와 제목 및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기재하며, 그림의 하단 좌측 맨 앞에서부터 작성</li> </ul>
<p><b>축, 눈금 및 범례의 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의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의 제목은 세로축과 가로축 각각 눈금 단위의 왼쪽과 아래쪽에 기재</li> <li>- 세로축 제목의 경우 눕혀 쓰도록 하되 아래부터 작성</li> </ul> </li> <li>• 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 표시는 너무 조밀하거나 광범위하지 않게 잡아야 하며, 도표나 그래프 내에 보조 눈금선은 그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눈금표시는 축의 바깥쪽으로 하며 세로축이나 가로축이 나타내는 내용이 2가지일 경우에는 좌·우축의 세로축을 모두 이용하여 2가지 단위로 나타냄</li> <li>- 가로축 역시 아래쪽과 위쪽을 이용하여 각각 다른 단위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li> <li>-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또는 단위가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양쪽을 모두 나타낸 후 왼쪽, 아래쪽 먼저 기타 눈금을 표시하도록 함</li> </ul> </li> <li>•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의 단위는 반드시 표기해야 함</li> <li>- 각각 축 제목 다음에 원괄호 안에 표기</li> </ul> </li> <li>•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례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표의 아래쪽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림의 형태에 따라서 오른쪽에 위치시키는 것도 가능</li> </ul> </li> </ul>
<p><b>논문 용지보다 큰 그림의 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 용지보다 큰 그림은 보통 사진을 찍어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음</li> <li>• 큰 지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축소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림의 경우에는 큰 종이에 그림을 작성한 후 논문의 지면과 규격이 같도록 접어서 사용</li> </ul>



구분	내용
그림의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번호 뒤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운 다음 그림의 번호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는데, 그림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한 하나의 문장을 사용</li> <li>• 그림의 제목이 길어서 그림의 우측 끝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줄 이상으로 작성하고, 각 줄은 첫째 줄의 제목 지점에 맞추어 작성하며, 그림의 제목 끝에는 표의 제목과는 달리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함 예: &lt;그림 3&gt; 국문논문의 국문 초록 예: &lt;그림 4&gt; 그림의 제목이 길어서 그림의 우측 끝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줄 이상으로 작성하고, 그림의 제목 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함.</li> </ul>
그림의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 설명은 표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기술한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함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읽지 않고도 그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과학분야에서는 필수적인 부분</li> <li>• 그림 설명은 그림의 제목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여 그림의 제목 뒤에 줄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설명이 길어서 새로운 줄을 시작해야 할 경우에는 제목의 왼쪽 시작부위와 맞추어 작성</li> <li>• 현미경 사진의 경우 시료의 염색방법과 배율을 명시하되 그림 설명의 맨 끝에 괄호 내어 기재하고, 시료의 염색 방법이 그림 설명 내에 명시된 경우에는 배율만 괄호 내에 작성</li> </ul>
쪽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이 있는 쪽은 본문의 쪽에 연속시켜 나타내고, 양면(Facing page)에 그림 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쪽에 쪽수를 표시하며, 그 쪽의 뒷면에는 쪽수를 기입하지 않음</li> <li>• 그림이 포함된 지면을 접었을 때는 접힌 지면의 아래쪽 중앙에 쪽수 기입</li> </ul>





## 참고문헌

- 김태수 편 (2010). 논문작성법. 제5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새로운 논문작성법.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 노경섭, 김정욱 (2021). 제대로 작성하는 논문.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영희, 박양하 (2022). 논문자료 탐색과 논문작성법. 서울: 청람.
- 논문작성법교재편찬위원회 (2003). 논문작성법(자연과학편).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명현국, 홍희기 (2007). 이공계 연구자를 위한 영어논문작성법. 서울: 문운당.
- 박성민, 김선아 (2019). 인문사회과학자를 위한 논문 작성 Handbook.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창원, 김성원, 정연경 (2012). 논문작성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성태제, 시기자 (2011).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신형덕 (2021). (초보 연구자를 위한) 쉽고 확실한 논문 쓰기 전략. 서울: 시그마프레스.
- 연세대학교연구처 (2006). 새논문작성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운진 (2021). 논문 작성 연습. 서울: 한국문화사.
- 임인재, 김신영 (2008). (교육심리사회연구를 위한) 논문작성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병기 (2008). 사회과학 논문작성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지식정보활용 백문백답.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official guide to APA style*. (7th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ne, J. D., & Foster, S. L. (2004). 학위논문작성법 (정옥분, 임정하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전자 자료>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s://irb.or.kr/>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s://lib.snu.ac.kr/>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www.nibp.kr/xel/>
- 연구윤리정보포털 <https://www.cre.or.kr/>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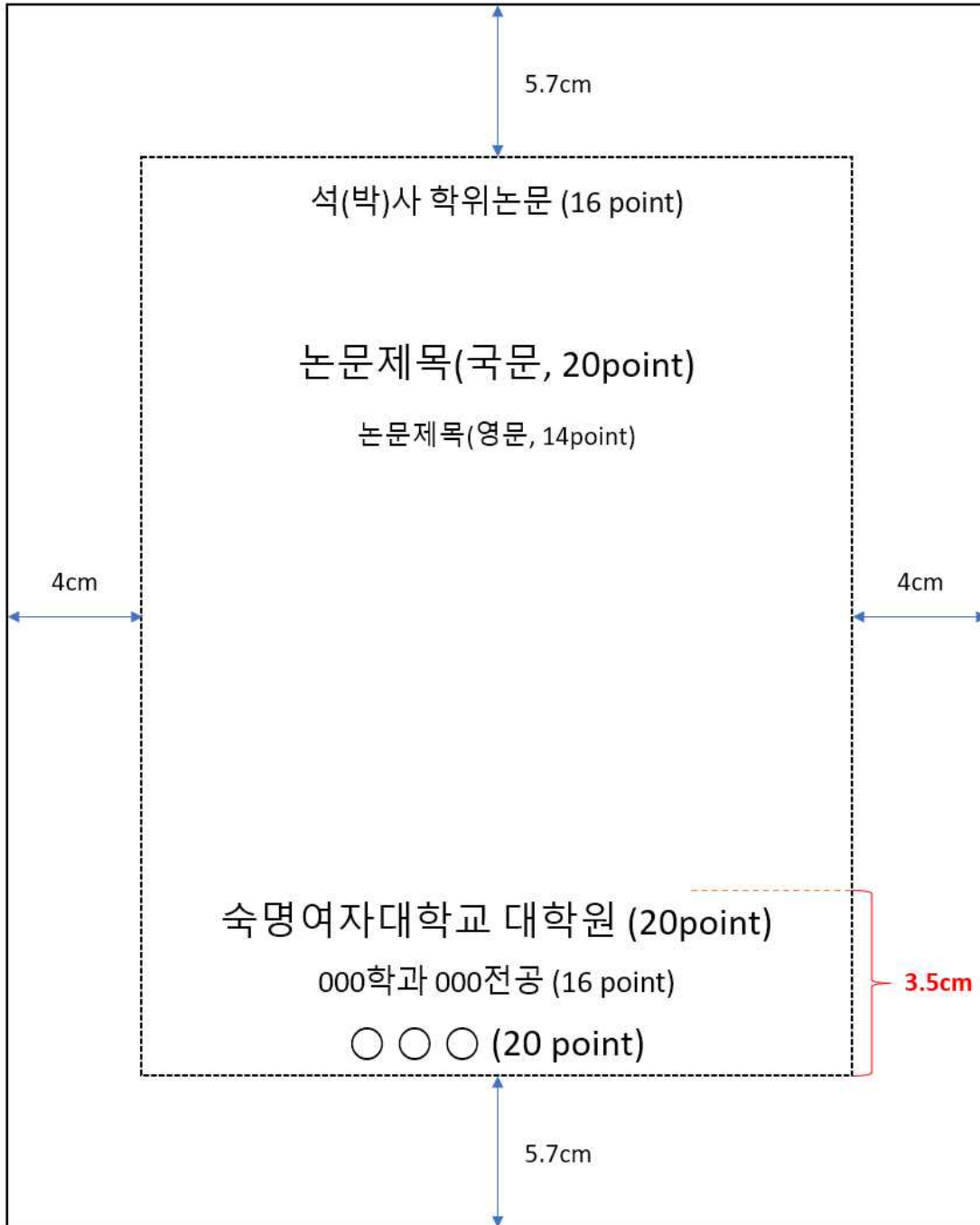


北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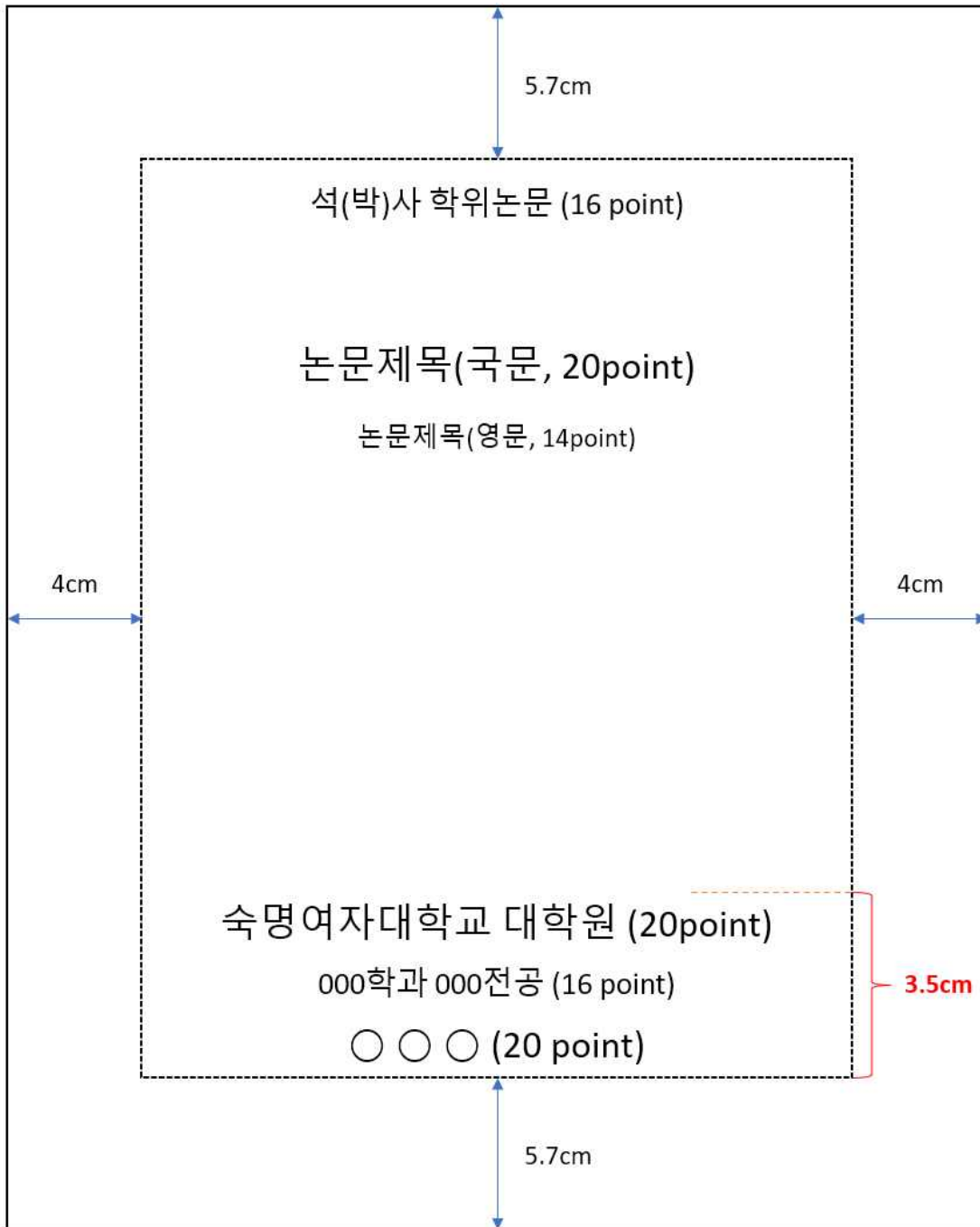
<별표 1> 겉표지 (제본용 기준)



- \* 겉표지 규격: 가로 210 mm, 세로 297 mm (A4)
- \* 국문 또는 한문 모두 사용가능하나 혼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다.
- \* 졸업년월 기재요령(책등): 2023년 2월/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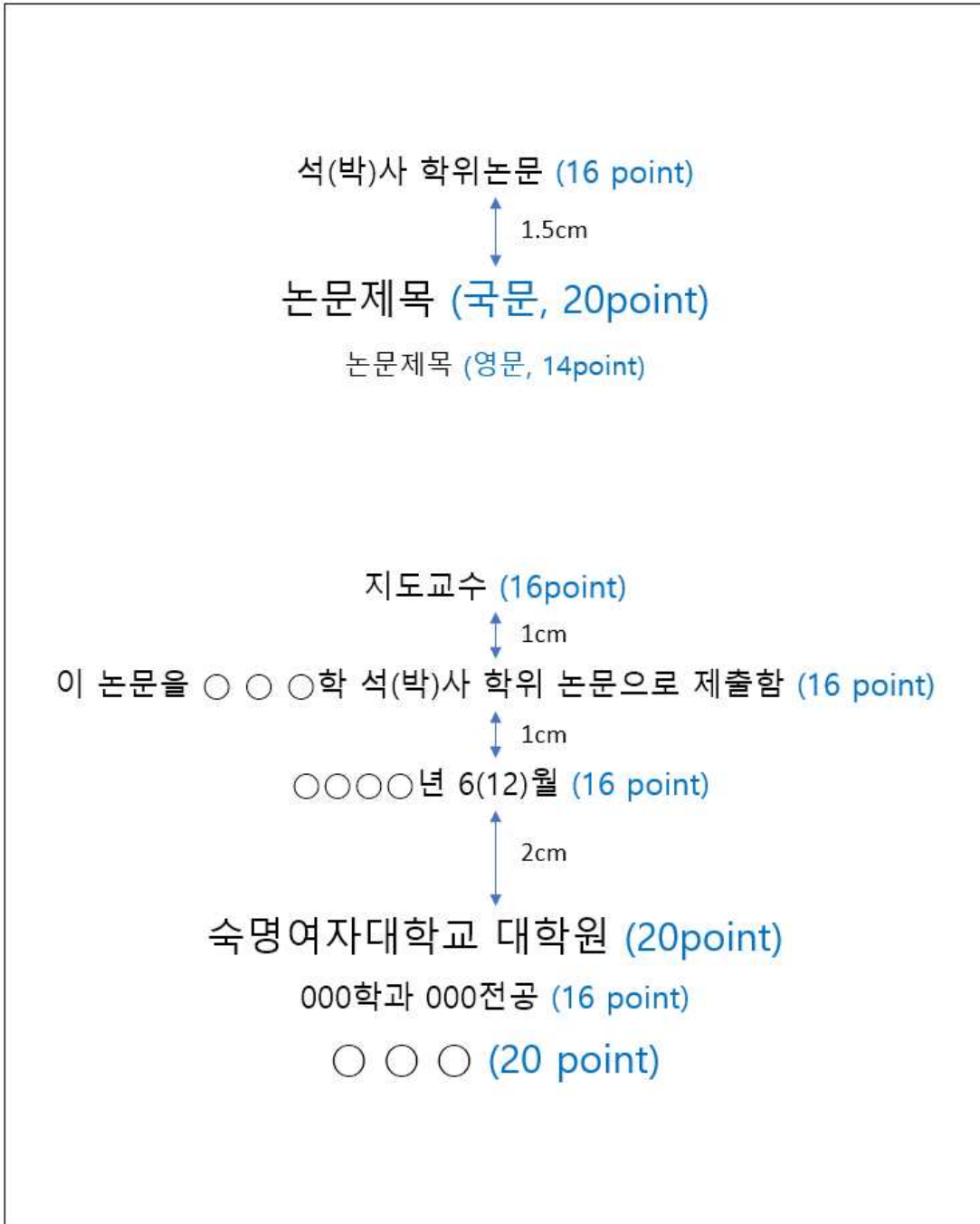


<별표 2> 표제면





<별표 3> 제출서 (속표지)



\* 논문인준일 기재요령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2022년 12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2023년 6월



<별표 4> 인준서

○○○의 ○○○학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16 point)	
↑ 1.5cm ↓	
논문제목(국문, 20point)	
논문제목 (영문, 14point)	
○○○○년 6(12)월 (16 point)	
↑ 1.5cm ↓	
(16point)	
심사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2cm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6 point)	

\* 논문인준일 기재요령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2022년 12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2023년 6월

\* 별도 제출용 인준서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자필 서명(또는 자필 성명 기재 후 날인)을 받아 제출함.

\* 논문파일 내 인준서에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백으로 둠.



<별표 5> 국문 목차의 예

## 목 차

(한 줄 띄움)

목 차	i
표 목 차	ii
그림목차	iii
부록목차	iv
국문요약	v

(두 줄 띄움)

I. 서론 (12 point)	1
II. 실험 재료 및 방법	4
1. 실험재료 (11 point)	4
2. 실험방법	6
1) 효소의 정제	6
가) 효소활성 측정	7
(1) 기질농도	7
(가) Km과 Vmax 구하기	7
① Lineweaver-Burk의 역수plot	8
나) 최적 조건의 선정	12
III. 실험결과 및 고찰	13
1. 효소의 정제	13
2. 정제된 효소의 특성	14
1) 분자량	14
IV. 요약 및 결론	30
V. 참고문헌	34
APPENDICES	37
ABSTRACT	48

\* “목차” 는 16 point, 가운데 배열하며 글자 사이에 공간(Space) 7 칸 만큼의 간격을 둔다.

\* 줄간격은 160%(1.6 줄)를 기본으로 한다.

\* 목차와 페이지 번호 사이에는 점선으로 표기하며, 번호의 오른쪽 끝이 일직선이 되게 배열한다.

\* 가장 상위 단위의 글씨를 12 point 로 하고, 그 바로 하위 모든 단위는 11 p



<별표 6> 표목차

LIST OF TABLES

Table 1.	Conditions for HPLC analysis of rutin .....	1
Table 2.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in buckwheat groats, germinated buckwheat and buckwheat sprout .....	3
⋮		
Table 10.	Changes of vitamin C contents in buckwheat groats, germinated buckwheat and buckwheat sprouts.....	40
⋮		
Table 100.	Changes of fagopyrin contents in buckwheat groats, germinated buckwheat and buckwheat sprouts .....	117
Figure 1.	Flow chart for cultivation of buckwheat spouts.....	2
Figure 2.	HPLC chromatograms of rutin in buckwheat groats and germinated buckwheat .....	5
Appendix 1.	Drawing of Sprouting Apparatus for buckwheat sprouts.....	1
Appendix 2.	Changes of whole length and root length in buckwheat groats, germinated buckwheat and buckwheat sprouts.....	3

- \* “LIST OF TABLES” , “LIST OF FIGURES” , “LIST OF APPENDICES” 는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아래의 설명과 같이 작성한다.
- \* 제목(LIST OF TABLES)을 16 point, 가운데 정렬 한 후 2 줄 띄우고 목차를 쓰기 시작한다.
- \* 목차내용은 11 point 로 하고, 각 목차간은 한 줄씩 띄운다.
- \* Table 쓴 후 한 칸 띄우고 표의 번호를 쓰고 마침표를 찍고 3 칸 띄운 후 표 제목을 쓴다. 이때 표의 번호가 2 자리나 3 자리로 바뀌더라도 똑같이 표의 번호를 쓰고 마침표를 찍은 후 3 칸 띄우고 제목을 쓴다.
- \* 표 제목의 마지막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 \* 제목이 길어 한 줄을 넘을 경우 첫째줄의 제목이 시작점과 다음줄의 제목 시작점을 맞추어 준다.



<별표 7> 국문논문의 국문 초록

## 국문초록 (16 point)

### (11 point)

메밀(*Fagopyrum esculentum* Mönch)은 분류학상 곡류와는 구별되지만 종실 조성이 골류와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잡곡으로 취급되는 여뀌과(Polygonaceae)의 일년생 초본으로 메밀에는 특히 rutin(Quercetin 3-rutinoside)의 함량이 높아 기능성 식품으로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Rutin은 quercetin에 rutinose가 결합된 flavonoid의 하나로서 메밀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며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병, 잇몸출혈, 구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 메밀씨에는 메밀종실의 몇 십 배에 달하는 rutin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식품으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밀 발아 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메밀씨 생산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 “국문 초록”은 가운데 정렬하고, 한 글자 사이마다 한 칸씩 땀다.
- \* “국문 초록”에서 11 point로 바꿔 두줄 땀 후 내용을 시작한다.
- \* 줄 간격은 160%를 기본으로 한다.
- \* 단락이 바뀌는 경우에는 2 글자만큼 들여쓰기 한다.

---

주제어: 메밀, 메밀씨, 발아, rutin, 화학적 특성.





<별표 8> 영문초록

## ABSTRACT (16 point)

### Change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Buckwheat Sprouts during Germination (14 point)

Sook-Myung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2 point)

(두 줄 띄움)

(11 point)

Buckwheat(*Fagopyrum esculentum* Möench), annual herb being classified into Polygonaceae family. Rutin(Quercetin 3-rutinoside) is one of flavonoids and is first isolated from buckwheat. It prevents cardiovascular disorders by strengthening capillaries and moreover, is effective on alleviating diabetes, hemorrhage on gums and halitosis. In particular, buckwheat sprouts have much more rutin than buckwheat seeds and their importance as functional food also have risen. This study analyzed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buckwheat during germination and the following culti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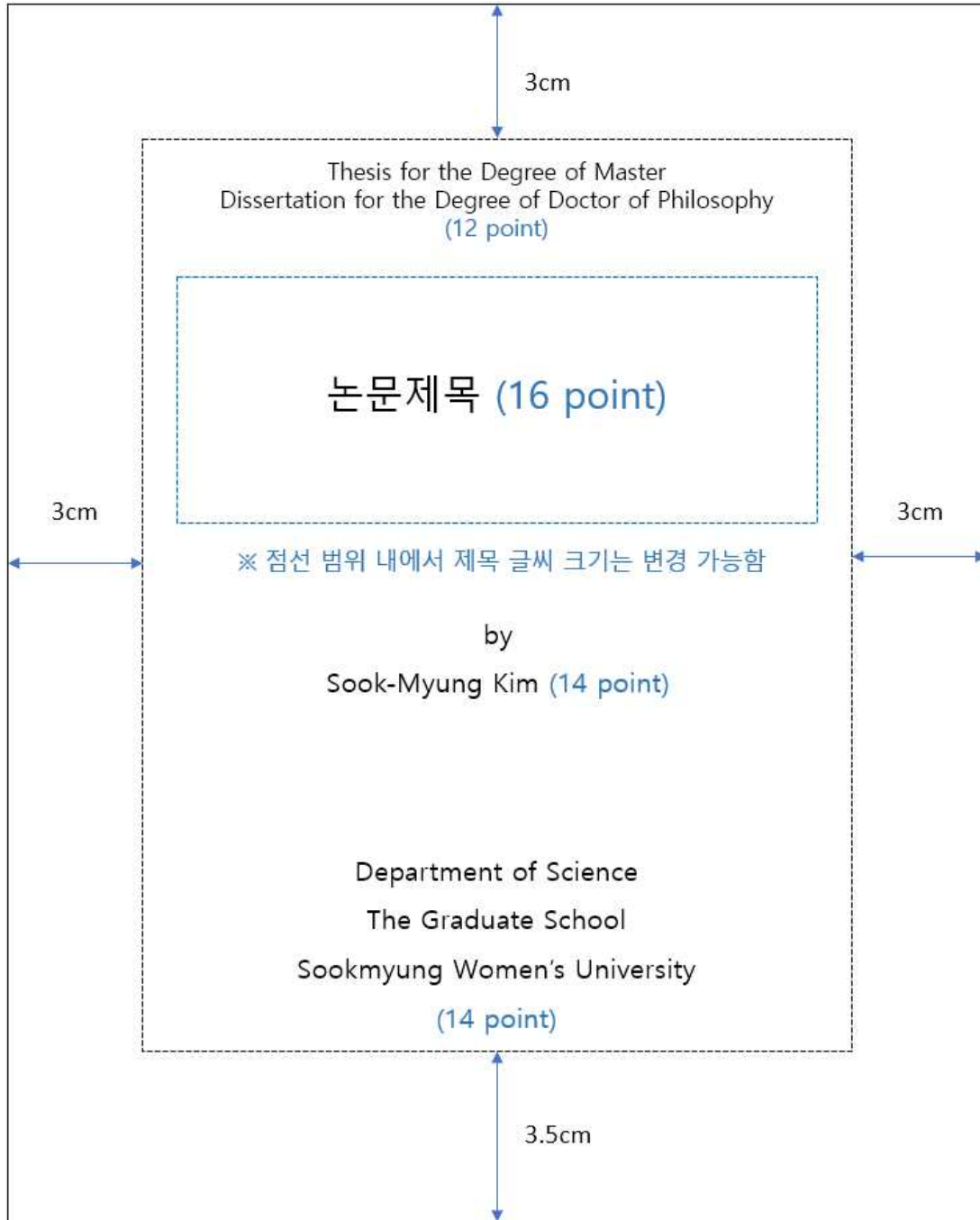
- \* “ABSTRACT” 은 모두 대문자로 입력하며 가운데 정렬한다.
- \* “ABSTRACT” 에서 한 줄 띄우고 영문 제목을 14 point 로 입력하며 가운데 정렬한다.
- \* 저자명, 학과, 소속대학원은 2 단으로 나누기 한 후 2 번째 단에 입력한다.
- \* 줄 간격은 160%를 기본으로 한다.
- \* 단락이 바뀌는 경우에는 공간(Space) 5 칸만큼의 여백을 둔다.
- \* “Key words” 는 여러 개일 경우 s 를 붙여 복수로 나타내며, 7~8 개의 단어로 작성하되 소문자로 표기한다.

---

Key words: kinetic parameter, microbiological assay, vitamin B6,  
dietary supplement, shelf-life.



<별표 9> 영문 표제면



\*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에서 8 cm 떨어진 위치에 저자명을 기입하고, 그 공간에는 논문제목을 입력하도록 한다.



<별표 10> 영문 제출서

TITLE (16 point)  
↕ 6cm  
by  
Sook-Myung Kim (14 point)  
(한 줄 띄움)

A Thesis(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nd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Doctor of Philosophy) (12 point)  
(한 줄 띄움)

In charge of major work: 지도교수 성명  
(12 point)

June 2023 (14 point)

\* 논문인준일 기재요령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December 2022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June 2023



<별표 11> 영문 인준서

**TITLE (14 point)**

This certifies that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of  
(학위명) of Sook-Myung Kim is approved by (12 point)  
**(한 줄 띄움)**  
 (10point)

\_\_\_\_\_  
(Signature)

Chair of Committee

\_\_\_\_\_  
(Signature)

Committee Member

\_\_\_\_\_  
(Signature)

Committee Member

\_\_\_\_\_  
(Signature)

Committee Member

\_\_\_\_\_  
(Signature)

Committee Member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4 point)**  
**June 2023 (14 point)**

\* 논문인준일 기재요령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2022년 12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2023년 6월

\* 별도 제출용 인준서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자필 서명(또는 자필 성명 기재 후 날인)을 받아 제출함.

\* 논문파일 내 인준서에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백으로 둠.



<별표 12> 영문논문의 국문 초록

ABSTRACT IN KOREAN (14 point)

논문제목 (14 point)

저자명 (11 point)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식품학 전공

(두 줄 띄움)

(11 point)

메밀(*Fagopyrum esculentum* Möench)은 분류학상 곡류와는 구별되지만 종실 조성이 골류와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잡곡으로 취급되는 여귀과(Polygonaceae)의 일년생 초본으로 메밀에는 특히 rutin(Quercetin 3-rutinoside)의 함량이 높아 기능성 식품으로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Rutin은 quercetin에 rutinose가 결합된 flavonoid의 하나로서 메밀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며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병, 잇몸출혈, 구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 메밀씨에는 메밀종실의 몇 십 배에 달하는 rutin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식품으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밀 발아 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메밀씨 생산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 “ABSTRACT IN KOREAN” 은 가운데 정렬한다.
- \* 영문논문에 들어가는 국문초록의 경우 논문제목과 저자명, 소속대학원 및 학과를 국문으로 표기하며 가운데 정렬한다.
- \* 소속표기 다음 두줄 띄운 후 내용을 시작한다.
- \* 줄 간격은 160%를 기본으로 한다.
- \* 단락이 바뀌는 경우에는 2 글자만큼 들여쓰기 한다.
- \* 주제어(keyword, 색인어)는 하단부에 논문의 핵심이 되는 용어를 5~8 단어로 작성하되 소문자로 표기한다.

---

주제어: 메밀, 메밀씨, 발아, rutin, 화학적 특성.